

# 과주시 읍면리동 지명유래

## 坡州市 邑·面·里·洞 地名由來

- |        |         |          |
|--------|---------|----------|
| 1. 汶山邑 | 6. 交河面  | 11. 金村一洞 |
| 2. 坡州邑 | 7. 條里面  | 12. 金村二洞 |
| 3. 法院邑 | 8. 廣灘面  | 13. 郡內面  |
| 4. 月籠面 | 9. 坡平面  |          |
| 5. 炭縣面 | 10. 積城面 |          |



파주시청

# 파주시의 행정구역도



# 문산읍(汶山邑)의 내역

〈과주시 문산읍 문산리 35-8〉 TEL:953-3003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신속, 칠정, 운천, 마정면이 이일대에 해당되었으며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신속, 칠정, 운천, 마정면을 통합 임진면 8개리(문산, 선유, 당동, 사목, 마정, 운천, 장산, 임진)로 개편되었다.

조선조 선조때 임진강의 명칭이 붙여진 이후 임진강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을 임진면으로 개칭하였으며 6·25동란 이후 1963년 법률 제1178호로 장단군 군내면 7개리가 편입되었다가 1972년 법률 제2395호에 의해 8개리(백연, 조산, 읍내, 송산, 방축, 공덕, 방목리)가 임진면에서 군내면으로 이관 임진면장이 군내면장을 역임하게 되었다. 인구증가로 인하여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3호로 월릉면 내포리가 임진면으로 편입되고 동시 임진면이 1979년 군조례 제610호로 군내출장소 개설로 파주군에 이관되었으며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로 과평면 이천리가 편입되면서 문산읍으로 개칭 승격되어 현재 읍소재지 문산리를 비롯해 10개리로 구성되어 있다.



〈문산읍사무소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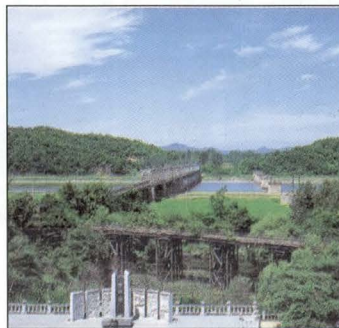
# 문 산 읍



시가지 전경



임진각



자유의 다리



반구정

# 문 산 읍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汶 山 里 황해로부터 올라오는 산과 같은 조수물이 임진강 화석정앞 문산천의 배내와 서적개 마을까지 오르내리고 있어 홍수가 범람할 때는 더욱 산더미 같은 물결과 더불어 흙탕물이 올라와 허허바다를 이루게 되어 불려진 이름	1	浦上洞	상 동	임진강 하류 낙하물이 흐르는 문산포 위에 있는 마을	163
		童山洞	동산골	문산포구 위에 대룡형국으로 된 이 산 정상은 낙하 주변 관망대로 광경이 절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려 험벗은 모양이 된 독산 또는 동산으로 불리어진 곳	210
		新市洞	새시장	문산 시내 중앙에 위치한 새로 생긴 번창한 시장 마을	351
		溪浦洞	개포말	문산역 앞 제방뚝 옆에 유엔 군속들이 건립한 3층건물 외기노조 아파트로서 옛 개포래가 있던 곳	410
	2	下浦洞	하 동	문산포구 아래있는 마을이라 하여 호칭	127
		遊山洞	유산골	하동에 있는 어룡이 입을 벌린 모양의 산골짜기는 여름철 연회를 즐기던 곳	111
	3	驛村洞	역촌말	서울서 신의주로 이은 경의선철도의 문산역 앞에 있는 마을	443
		泉谷洞	샘 골	옛날 두마리 지용이 어울려 있는 형국으로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은 약수로서 여름은 차고 겨울은 온수와 같이 물맛이 좋았다는 곳	220
仙 遊 里 이곳은 배내와 서적개울이 합류 문산포구로 흐르는 광장에 개포래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곳으로 이 지역 건너편 옥돌내가 흐르는 장포에는 철새와 따오기, 갈매기떼가 경관을 이루어 아름다운 절경을	1	鳳遊洞	봉유울	소나무가 울창하고 경관이 아름다워 봉황이 놀았다는 곳	253
	2	倉 洞	창 골	문산포에서 하역하는 상품과 곡식 등을 보관하였던 곳	110
		內谷洞	안 말	선유봉 서맥 아담한 골짜기에 있는 창골에서 바라보이는 안동네 군인아파트 마을로 옛날 죽산안씨들이 세거하여 유래	178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이루며 서원 산맥에 뻗은 봉우리엔 수시로 신선이 놀고 잤다는 마을	3	城惶垌洞	성 황대이	옛날 서원군 관아에서 선유봉하 산기슭에 설당한 곳으로서 서원군 관원들과 주민들이 국태민안과 부락 안녕질서를 기원하였다는 곳	117
		仙女洞	선녀올	선녀들이 이 뒷산 봉우리에 내려와 풍경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자주 놀고 올라왔다는 곳	80
		峯衙洞	봉아골	이 지역은 현 서원산하 고구려를 거쳐 고려조때 峯城縣 관아읍지로서 「峯」字와 관아의 「衙」를 따서 이름 지어진 마을로서 유래되었으며 조선조시 서원현 또는 원평현으로 개칭되었던 구읍지	65
	4	讀書洞	독서울	쌍백당(이세화)이 새릉에 안장된 후 숙종대왕이 다녀간 이래 이곳 주민들의 향학열이 더욱 높아 서당을 건립 독서에 전념하였다는 곳으로 유래됨	145
		新陵洞	새 능	쌍백당 이세화가 안장된 이곳 군신지의에 과거지사를 깊이 깨달은 숙종대왕은 신하로선 처음으로 새릉에 명칭을 하명하였다는 곳	30
		長丞洞	장 승백이	한양서 의주로 가는 국도변 이천원을 지나 도솔원(임진나루터)으로 가는 중로 새릉아래 있는 지정 표시판이 있었던 마을	66
		楊川洞	버들내	배내가 흐르는 개울가에 즐비하게 있는 양버들과 미루나무가 있던 새로 생긴 마을	340
		野村洞	들 말	배내 개울이 흐르는 변두리 논가운데 있는 벌판 마을	2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5	敦遊洞	돈유울	옛날 배내 개울이 마을 앞을 흘러 작은 배들이 오락가락 하며 유람객이 이곳 산에 올라 문산포의 풍경을 내다보며 돈독하고 흥겹게 자주 놀고 하였다는 마을	20
		七井洞	칠정말	이곳 골짜기 마을과 논밭에 일곱개 우물이 있어 불려진 마을	12
	6	外七井洞	외 칠정말	칠정말 바깥 배내가 흐르는 변두리에 있는 새로 생긴 마을	132
堂 洞 里 임진강이 흘러 낙하로 이어진 강변 산봉우리 마을로 이곳 무당 만신들이 祠堂을 모시고 배부리는 사람을 위주로 산, 수, 신(山水神)에게 무사고 명복을 발원하였으며 각지의 이름난 무당들이 모여 년중 한 번씩 일주일에 걸쳐 큰 신장굿을 베풀어 이룩한 마을	1	堂谷洞	당 골	장단, 파주, 교하 무당들이 임진강이 흐르는 낙하변 산봉에 굿당을 설치 매년 한 번씩 배를 부리는 선주와 선원들이 무사고를 기원하는 광범한 무당굿을 이곳에서 하였다는 마을	68
		基谷洞	터 골	온 무당들이 집단 거주 하였다는 만신터로 이름진 마을	20
	2	板僑洞	널다리	셋개울에 널판 다리를 설치 건너 다녔다 하여 이름진 마을	50
		赤雲洞	적운이	조선조말 대원군이 세상을 뜨자 이곳 평도공(平度公) 묘지 위에 대원군 봉분을 책정 하고저할 때 별안간 산소 상공에 빨간 구름이 뜨니 이를 지켜본 후손이 구름을 가리키며 여기는 산소를 못 쓴다며 달아나는 것을 붙잡으러 가니 간데없게 없어 사라져 이 광경을 본 관헌들이 돌아가 파천한 인조대왕 능자리에 모시게 되었다 하며 이로 인해 붙여진 이름	32
		艇拍洞	정박골	문산포상에 있는 동산북쪽 기슭 골짜기는 어룡의 꼬리 부분 옛날 작은 배들을 정박시킨 곳으로 유래된 마을	3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碕 澗 井 洞	추 주 우 물	적운이 위 골짜기 기슭에 있는 이 우물은 붉은 빛이 서린 물로 떠보면 없어진다는 신기한 약수로서 유명한 곳	12
<b>沙 鷺 里</b> 주위에는 낙하 물이 둘러싸여 푸른 파도와 함께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곳으로 하산(河山) 산맥 골짜기로 갈매기가 강하(江河)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 광활한 거로리 벌판을 맴돌며 춘추로 찾아오는 철새와 따오기 등이 사랑을 속삭이는 요란한 울음소리로 장관을 이룬 것으로 유래된 마을	1	盤井洞	반정어	소반같은 큰 우물이 삼태기 안말 산기슭에 있어 많은 샘이 솟아나온다는 마을	46
		祠壇洞	사당골	파평윤씨 소부공 이하 그의 선조 설단을 모시고 추모향사를 지내고 있는 마을	13
		伴鷗洞	반구정	갈매기 떼가 거로리 벌판을 헤매다가 임진강을 넘나들며 이곳 방촌선생에게 절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마을	20
	2	石結洞	돌결이	주위에 둘러있는 육산허리에 돌이 박힌 줄기가 연결되어 형성된 마을	20
		外 盤 井 洞	말 반 쟁 이	서맥으로 뺨은 바깥뿌리 산기슭에 소반같은 큰 우물이 있는데 샘이 가뭄에도 많이 나온다는 곳이며 떡반정, 밥반정, 죽반정이라고도 이 지역에서 부르고 있음	30
<b>馬 井 里</b> 옛날 앞을 분간 할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한 어느날 새벽 햇살이 우물에 꽃히면서 우물에서 갑자기 용마가 뛰어나왔다는 연유로 붙여진 이름	1	馬頭洞	말 우 머 리	하산(河山) 북맥 기슭에 샘이 많이 나는 우물이 있는데 안개 낀 어느 날 아침 윗산봉우리(장수산)에서 용장이 나와 이 우물에서 나온 흙이 묻은 말머리를 깨끗이 씻은 후 타고 사라졌다는 곳	77
	2	夜味洞	밤미골	우물에서 말이 나왔다는 신기한 이 말을 들은 이곳 사람들은 용장이 말을 타고 사라진 곳을 찾다 못해 밤에 인근 주민들이 모여 입맛만 다셨다 하여 불려진 마을	127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3	馬隱洞	마은골	옛날 말이 건너편 산기슭에 있는 말우물에서 나와 이곳에서 숨어 있다가 사라졌다 하여 불리어진 마을	59
	4	長芝洞	장지말	이곳 산과 들에 잔디풀이 길게 많이 깔려 있어 봄, 가을이면 아름다운 황금 돛자리 같다 하여 붙여진 마을	47
<b>雲 泉 里</b> 백운산하 장릉(인조대왕) 바로 밑 산기슭의 샘물은 약수로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며 이 골짜기 여러곳에 많은 샘물이 나오고 있어 불리어지고 있는 호칭	1	大德洞	대덕골	왕릉이 모셔진 이 곳 사람들은 능직이 등 많은 벼슬길에 올랐으며 크나큰 혜택으로 은덕을 입었다 하여 불려진 마을	85
	2	陵 洞	능 말	인조대왕은 서기 1649년에 세상을 뜨자 이 곳 백운산하 서맥 사두혈에 안장된 후 불리어진 마을	80
		忠義洞	충의골	인조대왕에게 극진히 사랑을 받던 신하들이 이 곳에 거처하면서 능참배와 수호를 충실히 받들어 붙여진 마을	47
	3	絃岩洞	바 우 배 기	백운산 서맥 통일로변 육산에 검은 돌이 여러 군데 바위가 박혀 있어 불려진 마을	66
		筏 洞	벌 말	이 마을은 산기슭에 있는 무성한 덩부사리가 많던 곳으로 이름한 곳	26
		湫杜洞	보막이	이산 끝머리에 저수하기 위해 보를 막았던 곳으로 보막이 뿌리로 호칭 새로 생긴 마을	35
<b>長 山 里</b> 백운산 북맥 임진강 주변으로 길게 뻗힌 산기슭의 여러개의 마을이 형성된 지역	1	大村洞	큰 말	백운산 준령으로 길게 서북간으로 뻗힌 산기슭에 있는 큰동네 마을	66
		盲田洞	맹밭골	황무지로서 곡식이 잘되다 안되다 하는 망녕된 밭 마을	25
	2	新基洞	새터말	옛날 밭으로 있던 곳으로서 새로 생긴 마을	30
		堂趾洞	당터골	옛날 근처 무당들이 모여 당터에서 산신제를 지내면 동리 사람들의 안녕 질서를 기원하던 유명한 만신이 있던 마을	19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b>臨 津 里</b> 임진나루는 옛 장단군 동파나루로서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이 의주로 몽진당시 이나루를 건널때 폭풍우로 말미암아 무한한 고초를 당한 사연이 많은터로 환궁 당시 호종하던 신하들과 함께 기쁨에 벽차천추의 한을 이 강물에 눈물을 씻으며 하명하기를 이 나루에 다시 임했다하여 임진(臨津) 신지강이라 불리었던 것을 임진강이라 개칭하고 이 근동부락 명칭도 생긴 곳		津趾洞	나루터	한양서 의주로 가는 국도 임진강 나루터는 옛 주막거리(兜率院)와 유유히 흐르는 강변 기암절벽에 화석정이 있는 유서 깊은 곳	44
		澗岩洞	주암골	주위 산에 아름답게 물들인 바위가 있어 불려진 마을	10
<b>梨 川 里</b> 동네있는 많은 배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배가 늦장마와 더불어 폭풍우로 말미암아 한때 전부 떨어져 지내울을 걸쳐 박피 약수터를 지나 독서울 앞 문산포로 떠내려간 후 불려진 이름. 서기 1983년 2월 10일 대통령령 제11027호로 파평면 이천리를 문산읍에 편입	1	藥水洞	약수골	옛부터 속병이 잘났다는 신호의 약수 마을	65
		內 洞	안 말	약수터 안쪽에 있다는 마을로 호칭하며 서향에 아늑하고 조용한 곳.	78
	2	智川洞	지내울	광평산맥에는 인·의·예·지봉이 있는데 남맥으로 뻗힌 지봉에서 흘러내려 와서 지내울이라 호칭	26
		梨集洞	배모리	옛날 이 마을 근방에 배밭이 많았던 곳으로 배우물(梨井)가에 모아 깨끗하게 배를 씻어 팔았다는 마을	18
	3	瓢山洞	박피말	이 마을 앞산이 표주박 같이 생긴 모양의 산이 있어 불여진 호칭	37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內 浦 里 옥돌내를 걸쳐 내려오는 냇물이 길고 넓은 개포래로 이어진 안말로서 불리어진 마을. 서기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2호로 월릉면 내포리를 문산읍에 편입	1	長浦洞	장개말	광탄천이 옥돌래를 걸쳐 장개(長浦) 긴 포구 임진강으로 흘러내리는 개울 안말로서 또한 이곳은 장포(金行)선생 생장지이며 용주서원에 배향	27
		知禮洞	지례골	장포(김행)선생의 교훈을 받들어 예의범절에 숭고한 마을 또한 배가 크다하여 智大洞으로도 부름	10
	2	梧木洞	오목이	오동나무가 주위산에 울창한 마을	
	3	龜村洞	구촌이	낙하를 바라보고 있는 거북모양의 거북산이 있는 마을로 굽어 들어갔다 하여 屈村洞으로도 호칭	24 124
		楸洞	가래울	가래나무가 울창하게 있던 곳	
4	文賢洞	문현말	이 지역은 구촌이 깊숙한 안에 있다는 안마을로 내곡동으로 호칭 또한 성씨문중에 많은 문현이 배출된 곳이며 특히 용제(成俔)선생은 선현 현창 50위중 한분으로 유일한 음악가이시다	18 32	
계	10	30	60		5,151

## 파주읍(坡州邑)의 내역

〈파주읍 파주리 428〉 TEL:952-4300

1896년 이전은 문산읍과 동일하다.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자곡, 칠정면 일부가 주내면으로 편제되어 백석면을 통합 주내면이 7개리(파주, 연풍, 부곡, 백석, 봉암, 봉서, 향양리)로 개편되었다.

서기 1950년 6·25동란이후 UN군이 주둔하자 각지에서 몰려든 인구 밀집으로 말미암아 주내면에서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로 주내읍으로 승격, 이어 1983년 2월 10일 대통령령 11027호로 파주읍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파주읍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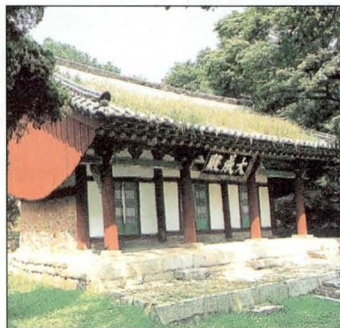
# 파 주 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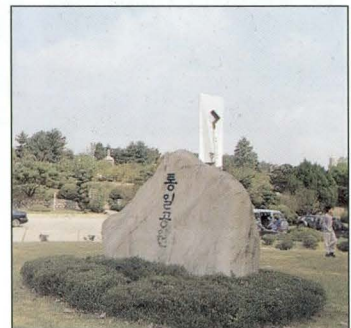
시가지 전경



성훈선생묘



파주향교



통일공원

# 파주읍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坡 州 里 파주목으로 개칭 청사를 옮겨 온 이후 한양서 중국을 넘나드는 목관아가 있는 중간지점으로서 정치·경제·문화 등 대성황을 이룬곳	1	馬山洞	마 산	이 마을은 옛 조선조초기 서원군과 파평현이 병합 원평군으로 개칭 청사를 잠시 이곳으로 이전되었다가 현 파주향교 앞으로 청사가 이전된 후 파주목 관아에서 부리는 군마와 파발말을 기르게 되어 이름한 지역	69
		冷井洞	냉정골	이 곳은 봉서산 남맥 산하에서 옥수같은 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는데 여름에는 차고 겨울에는 온수같다 하여 불려진 마을	30
	2	東學洞	동학동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는 참신한 우리나라의 동양을 길러 동방에 빛나는 학교 마을	30
		把發街洞	파 발 거 리	이 지역은 옛날 파주목에서 정사를 하기 위해 파발관원(전령)들이 자고 먹던 숙소로서 이름한 곳	215
		市街洞	시 장 거 리	이 지역은 옛 파주목 골안에 있는 생활 필수품 시장으로서 성황을 이룬 지역이며 지금도 시장거리 지역이다.	200
	3	鄉校洞	향교말	옛날 골원 관사가 있던 지역이며 위골짜기에 파주향교가 있는 마을	106
	4	美阿洞	미아골	이 마을 뒤 골짜기에 이름이 높고 청결한 학자 송진명 예조판서가 살아 있어 양편골짜기로 올라가는 언덕 길 옆에 아름다운 나무 등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져 이름한 곳	76
		薪場洞	나 무 거 리	이 지역은 사방에서 나무 장사들이 몰려와 팔고 사고 하던 곳으로 불려진 마을	250
	5	州內洞	골안골	이 지역은 현 파주읍사무소 앞에 옛날 파주목청사가 있던 곳이며 주내면이 파주읍으로 승격 개칭됨에 따라 주내리라는 호칭이 사라져 이름진 곳	8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學堂洞	학당말	봉서산하 파주목 동쪽 내령으로 뻗힌 자그마한 봉우리에 청아하고 아담한 이곳에서 옛날 서당이 있어 불리어진 마을	50
		酒幕洞	주막거리	이 마을은 파주목 청사가 옮겨 온 이후 주막거리로 장날이면 대성황을 이루었던 지역	189
		6	五加洞	오가리골	오가리나무(피부병 특효약)가 주위에 있는 산에 무성하였다는 곳으로 이름한 마을
延 豊 里 이 지역은 갈곡천에서 옥수같은 냇물과 삼방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상 즐기차게 흘러 풍수해를 몰라 연연이 대풍을 이룬다하여 불려진 곳	1	漲水洞	창수골	갈곡천과 어룡저수지에서 나오는 물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마을 앞으로 철철 흘러 내린다고 하여 유래된 아파트촌	80
		穴岩洞	혈암말	이 마을 뒷산은 풍화작용으로 석회석과 차돌로 몽친 용이 서려있는 형상(蟠龍山)이며 속이 텅비어 있는 산아래 마을로서 龍岩洞으로 불리었다고 한다	267
		龍池洞	용지골	이 반응 산하편에 큰 연못이 있었는데 어느 날 뇌성벽력과 아울러 폭우가 쏟아지더니 연못 물이 솟구치면서 용이 나와 상천하여 유래됨	150
		頌德洞	송덕골	조선조시대 역대 파주 목사들 중 가장 선정을 베푼 사도에게 이를 길이 빛내기 위해 주민들이 정표로 세운 송덕비 마을	300
		豊溪洞	풍계말	이 마을은 옛날 갈곡천에서 내려오는 냇물로 인하여 전답에 가뭄을 모르는 곳으로 불려졌으며 UN군이 주둔한 이후 새로 생긴 마을	260
		2	棗谷洞	대추골	이 지역 일대에 대추나무를 집집마다 심어 많은 수확을 얻었다 하여 불려진 마을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蟾橋洞	섬다리	이곳은 갈곡천에서 내려오는 여울 대추골에서 혈암등(穴岩洞)으로 건너다니던 두꺼비 모양의 돌 징검다리가 있던 새로 생긴 마을	260	
		清流洞	청류골	갈곡천과 삼방천이 합류하여 내려오는 옥수수같은 개천 옆에 길게 새로 생긴 마을	200	
		3	藥水洞	약수골	이 마을은 아래 대추벌이라고도 불리우고 있으나 가마봉하 약수암자가 있는 곳으로서 속명에 특효 약수로 이름이 높아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지역	30
			龜山洞	거북피	이곳은 가마봉 북맥으로 파주읍내로 머리한 산맥 가운데 있는 산 형체가 마치 거북이 모양이며 물을 먹고 있는 형용으로서 주위에 있는 마을	54
釜 谷 里 이 부락 뒤 남북으로 나란히 우뚝솟은 다섯개 산봉우리는 마치 큰 가마솥을 걸쳐 놓은 형상이며 가운데 주봉으로 양편에 2개씩 봉우리가 있어 불려진 마을로 북쪽 가마봉 끝 내령에 오봉산을 이루고 남쪽 가마봉 서쪽 내령으로 길게 뻗혀 우거니를 지나 무쇠봉을 이루고 있다.	1	陽地洞	양지말	북쪽 가마봉 서맥 오봉산으로 뻗힌 내령 중간허리에서 끝머리까지 분포된 마을	22	
		五峯洞	오봉골	북쪽 가마봉 서맥 내령 끝머리 부분에 우뚝 솟은 다섯 개 봉우리 밑에 있는 마을	10	
		陰地洞	음달말	남쪽에 위치한 가마봉 서맥 가운데 뻗은 내령 끝머리 북향마을 양지마을 바라보는 산골짜기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	16	
		泉谷洞	샘 골	이곳은 가마산 남맥 가운데 내령 끝머리 부분 음달말 바로 산너머 부락으로 샘이 많이 난다 하여 이름한 골짜기 마을	12	
	2	釜藩洞	가마울	이 부락 뒤에 둘러있는 다섯개 높은 봉우리는 마치 큰 가마솥을 걸어놓은 형상이며 가운데 주봉으로 배려뻗힌 우뚝 솟은 봉우리는 불때는 아궁이 형상을 방불케 하는 위 골짜기 마을	2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陳谷洞	진 골	이 골짜기는 토질이 질고 메말라 곡식이 잘 안되며 묵혀 내버려진 황무지 마을	10
	3	廣川洞	넓 은 마 을	이 마을 앞으로 광탄천이 흘러 홍수 때에는 많은 물이 범람, 개울바닥이 넓어져 이름한 지역이며 옛 국도변으로 장승이 있던 마을	40
白石里 남쪽 가마봉 끝머리 무쇠봉이 흰돌이 뭉쳐져 있어 불려진 마을	1	牛巨洞	우거니	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청룡백호 내맥 가운데로 내려온 산맥은 마치 큰 소가 엎드려 있는 형체로서 바로 앞에 뜨불 웅덩이가 있어 불려진 곳	44
	2	鷹野洞	매야울	이 마을 바로 뒤에 무쇠봉 남맥 끝에 매가 날아가는 모양의 바위가 있어 매야울로 부르며 또 매가 앞뜰을 날아든다 하여 호칭	44
	3	五羅洞	오라리	남쪽 가마봉이 4분5열로 서맥으로 내려 뻗혀 우뚝 솟은 무쇠봉이 오행으로 벌린 서쪽 마을	45
		野洞	별 말	이 별판말은 파주 간이역(철도)이 생긴 후 새로 생긴 별판 가운데 있는 마을	13
	4	逃將洞	도장골	이곳 무쇠봉하에 장사가 나와 건너편 산하 웅덩이에서 나온 용마를 타고 도망갔다하여 유래된 곳	43
	5	亭子洞	정자말	이 정자는 1710년 辛致複이 파주목사로 있을 당시 그의 부친인 辛泰東이 손수 건립 二泗亭이라 명칭하였으며 청아한 이곳에서 정담을 나누었던 곳	28
烽岩里 이 봉화봉 정상 봉화대 주위에 암벽으로 둘러싸여 이룩한 분포지역	1	絃岩洞	현암골	이 마을 주위 산에 있는 바위가 줄무늬로 아름답게 깔려있어 이름한 곳	34
		礪羅洞	주라이	이 부락 형체는 뒷산으로 둘러싸여 돌배 모양으로 되어 이름한 곳	6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峰峴洞	봉위재	이 지역은 옛날 뒤 산정에 봉화대가 있었는데 이 봉화봉 위에 위치한 고개너머 있는 마을	47
	3	防築洞	방축동	봉화봉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옛날부터 방축이 있어 유래되었으며 현재 낚시터로 사용하는 안 마을	38
	4	新村洞	새마을	이 마을은 새로 생긴 마을로 옛날부터 유래된 곳	53
	5	鷄室洞	닭이실	이곳은 양활개 산맥이 서향으로 뻗혀있는 가운데 내령 끝머리가 마치 닭의 등지모양으로 생겼으며 바로 밑 연못에서 황개닭이 나와 이 등지에 있었다 하여 유래된 마을	15
			烽火洞	봉화대 바로 아래 마을로서 봉화골로 불리고 있으며 또한 셋 봉위재로도 이름한 마을	19
鳳 樓 里 이곳은 봉서산 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경관이 아름다우며 송림이 울창하여 봉황이 깃든 곳으로 이름한 마을	1	火藥洞	화약골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행주산성에서 대승한 이후 이 봉서산에 진을 칠 때 화약을 쌓아 놓은 곳으로 유래된 마을	45
		忠烈洞	충열말	경순왕 후예 양주목사 金德慶이 임진왜란 당시 거룩한 죽음으로 충신으로 선정하였으며 또한 그의 며느리 신평송씨도 병자호란 당시 청군에 붙잡혀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려 열녀로 선정되어 후손들이 충신 열녀각을 세워 길이 추모하고 있어 유래된 곳	17
		鶴 洞	학 골	이 지역은 송림이 울창하고 화려해 수많은 학이 있던 곳으로 유래된 마을	20
		黑石洞	검은돌	이 마을 뒷산 뿌리에 검은 돌이 박혀 있어 이름한 곳	1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赤田洞	붉 은 밭 이	이 지역 전답이 빨간 진흙의 토질로 형성되어 이름한 마을	209
		忠顯洞	충현말	통일로변 문산 초입에 우뚝우뚝 솟은 수개의 추모미는 6.25동란 당시 국가 민족을 위해 초개와 같이 사라진 영웅들의 넋을 길이 추모하여 이름을 남기기 위해 통일공원이란 명칭 봉안된 주위 마을	15
	3	潛坊洞	잠방골	이 마을 앞에 제방을 쌓아 놓았으나 조수물이 많을 때와 홍수 당시 자주 제방뚝이 넘어 잠긴다 하여 이름한 곳	26
		玉女洞	옥녀골	이 곳은 봉서산 북맥 내령으로 나란히 세 봉우리 중 끝 봉우리로서 옛날 선녀가 봉서산에 내려와 산정에 있는 우물에서 목욕을 한 후 상쾌한 기분으로 이봉저봉을 건너 뛰다가 약간 멀리 떨어진 끝 봉우리에서 옥비녀를 잃어버려 찾다 못해 드냥 올라 갔다 하여 유래된 끝 봉우리 마을	107
向 陽 里 울곡선생과 친교가 두터우며 성리학에 고명한 성현 성우계선생이 선조대왕의 사랑을 받아 오던중 세상을 뜨자 선조대왕이 능으로 책정된 이 자리에 묘를 쓰도록 한 후 많은 제자들이 밝은 태양을 맞이하여 바라보게 되었다 하며 이 지역에서 당을 세워 많은 유학자	1	西 作 浦 洞	서작포	이 포구는 문산포 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파주목 관아가 동남부 지역 화물 운반을 하기 위해 인작으로 만든 상선포구이며 발룡산 서맥에서 내려오는 外陵內陵 發興洞 골짜기 냇물이 흘러 서적개라고도 호칭하고 있음	140
		外陵洞	밖능안	성우계 선생이 자리 잡은 묘역은 명지로써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이 의주로 파천하였다가 환궁 당시 선조대왕릉으로 책봉되었던 자리로서 이때부터 능이라 불려진 호칭으로 이 능산봉 바깥 쪽을 이름한 곳	67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들이 생긴후부터 이름 한 마을	2	發興洞	밭이골	이 곳은 발룡산 앞 골짜기로서 용이 분 발하여 꿈틀대며 일어났다 하여 붙여진 마을	14
		魁洞	생 말	이 골짜기는 서작포상에 있는 풍요로운 곳으로 족제비가 많이 들끓어 이름한 마 을	40
		內陵洞	안능안	선조대왕이 능을 책봉한 지역 안 마을로 양주 구리면 언창리(동구능)에 능봉자리 를 잡은 후 우계(成渾)선생에게 하사된 이곳 명지이다.	12
계 7	27	55			4,446

## 법원읍(法院邑)의 내역

〈법원읍 법원리 376〉 TEL:958-2001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천현내패면과 천현외패면을 병합 천현면으로 하고 28개리로 구성되었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에 10개리(법원, 갈곡, 오현, 직천, 응담, 금곡, 동문, 가야, 대능, 삼방리)로 개편되었다. 1989년 군조례 1280호로 천현면을 법원읍으로 승격 개칭하였다.

이 지역은 갈곡리와 삼성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이 법원리와 대능리 별관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는 지하 1km 정도로 물줄기가 흘러 가야리 황새말 앞으로 터져 흘러내리자 샘물을 덮어 흐르는 고개(泉峴)라하여 유래 되었다.



법원읍사무소 전경



# 범 원 읍



시가지 전경



자운서원



이이선생묘



애룡저수지

# 법원읍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b>法 院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당시 법의리 「法」字와 원기리 「院」字를 따서 이름한 곳	1	潛水洞	잠수골	이 지역은 초리골과 짚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많은 냇물이 이곳에서 법원리 일대를 거쳐 땅속으로 숨어들어 가야리 황새마을로 터져 흐르게 되는 마을로서 유래	207
		院基洞	원 터	이 지역은 옛날 檜院이란 명칭아래 주막 거리가 있었던 곳으로서 유래된 마을	150
		學園洞	학원말	이 지역에는 울곡고교와 법원초교가 있는 학원마을로서 이름지어진 곳	140
		市街洞	시 장 거 리	이 마을은 옛날부터 5일장을 설치 시장 변영을 이루고 있어 이름한 지역	360
	2	五洋洞	오양골	이 마을 뒷산에서 옛날 다섯마리 양이 나와 남북간으로 2마리씩 달아나고 산하 별쪽으로 한마리가 달아나 숨었다 하여 유래	26
		獐山洞	노루피	이 마을 뒷산 형체가 노루모양으로 되었다 하여 이름한 지역	20
		泉谷洞	샘 골	이 마을은 각처 산기슭에 샘물이 많이 나와 이름지어진 곳	15
		內谷洞	안 골	이 마을은 깊숙한 골짜기 안에 집단부락으로서 이름한 지역	16
		三 姓 垞 洞	삼 성 대 이	이 마을에는 옛날 3姓 高, 尹, 陸氏가 정착 세거하여 유래되었으며 안골 산 기슭 大慶堂을 설치 매년 안녕을 기원하는 치성을 드린 곳, 또한 법과 의리를 지키자는 뜻에서 法義洞으로도 호칭	130
	3	楊柳洞	버들미	이 마을은 삼성대에서 내려오는 시냇가에 있는 곳으로 제방둑에 미루나무를 심어 유래	1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洋隱洞	양은말	이 마을은 오양산에서 양 한마리가 내려와 이 별관 숲 속에 숨었다 하여 이름 지어진 지역	125
		4 雌雄山洞	자운외	이 마을은 자산(雌山) 아래 있는 초리골로 들어가는 초입 도로변에 분포된 곳으로 이름하였으며 여우골로도 호칭	22
		礁楫洞	초이골	이 마을 뒷산 바위 바닥에 암초 버섯이 많이 달려 이름지어진 곳이며 이 골짜기 잡초가 길길이 우거져 풀이 많아 草里洞으로도 호칭	35
<b>葛谷里</b> 이 지역은 노고산 내령으로 자운산을 거쳐 삼봉산에 이르러 수레너머고개 좌우편 산야에 칩덩굴로 뒤덮여 이름한 곳이며 갈변동의 「葛」字와 은곡동의 「谷」字를 따서 유래		隱谷洞	은 골	이 마을은 수레너머 고개로 올라가는 중턱 골짜기 깊숙하게 숨어있는 곳이라 하여 이름하였으며 아래 동이점말을 포함한 지역	36
		鸚峯洞	황새외	이 마을 뒷산은 마치 황새가 날아가려는 모양의 형체로서 이름하였으며 이 산하기슭에 분포된 부락	18
		上村洞	상촌말	이 지역은 삼봉산하 위골짜기에 있는 마을로서 이름한 곳이며 위마을로 유래	38
		葛藩洞	칩 울	이 마을은 노고산 내령에 자운산을 둘러싼 전역에 걸쳐 칩덩굴이 너무나 많이 번창하였으나 특히 이곳은 칩으로 울타리를 하였다 하여 유래	26
		南陽洞	남양골	이 마을은 자운산이 둘러싸인 수레너머고개길 하단부에 속한 남향에 위치한 아늑한 양지마을로서 이름지은 부락	18
<b>梧峴里</b> 이 마을은 수레너머고개 상봉에서 직천리로 이은 고개길을 비롯, 부락에 오동나무들을	1	東頭羅地洞	동 두라지	이 마을 주위 산야에 엄청난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오동나무 가구와 악기 제작용품 재료로 서울에다 팔아 왔다 하여 유래된 곳으로 동쪽머리 넓은 연못이 있어 이름한 지역	3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조림하여 유래된 지역		梁家垵洞	양가대	이 마을에는 옛날 石潮(梁震龍)선생이 정착 학덕과 재능이 뛰어난 근동에 있는 선비들이 몰려와 공부를 하였으며 후손들이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지은 부락	11
		泉洞	샘이골	이 마을에는 산기슭 여기저기에서 깨끗하고 물맛이 좋은 샘물이 많이 나와 이름하였으며 또한 이곳에 梁石潮 선생의 거룩한 얼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壇을 설치 (東峴壇) 正窩, 心齊선생을 아울러 3位를 모신 마을	24
		梧裡洞	오리골	이 마을 주위에는 오리나무를 많이 심어 감실거리는 오동나무 열매를 벗삼아 두메산골에서 마음을 달래게 된다 하여 이름지은 곳	16
	2	車躑嶺洞	수레너머골	이 마을은 양주 가래비와 범원리로 넘나드는 고개길로 수목이 울창하고 험준하며 도둑이 많아 오십명(쑤명)이 모여서 넘어 다녔다 하여 쑤너머 고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왕래하였다 하여 유래	18
		遠遠洞	멀원이	이 마을은 수레너머 고개 마루에서 직천리로 내려가는 기나긴 고개길, 너무나 멀고 멀어 유래된 곳	36
		富作洞	부작골	이 지역은 첩첩산중 두메산골로 잡곡밥도 배불리 먹지못해 원한이 되어 일구월심 어떻게 하던지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부자마을로 만들어 잘 살자는 뜻에서 이름한 곳	28
直川里 이곳은 오현리 수레너미 고개에서 내려가는 산골짜기 냇물이 곧바	1	三瓢洞	삼박골	이곳은 한미산 북맥 巽斜型 세 갈래로 뻗힌 중턱에 각각 우뚝 솟은 봉우리는 마치 바가지를 엮어놓은 형체로서 이름한 아래 마을	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로 이 지역을 통하여 늘노천으로 흘러 곧바로 흐르는 냇물이라 하여 이름한 지역	2	陽地洞	양지말	이 지역은 산골짜기 양지쪽에 위치하고 있어 이름 지은 곳	11
		隱地洞	은지말	이 마을은 산골짜기 깊숙히 숨어 있는 지역으로서 이름 지은 곳	10
		雪院洞	설원이	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여러 산봉우리에 겨울철 눈이 내리면 마치 큰 지붕모양을 나타내어 이름한 마을	17
		飛岩洞	날바위	이 마을 뒷산에 학이 날아가는 형국의 바위가 있어 이름하였으며 비학동으로도 호칭	12
<b>熊 潭 里</b> 이 지역은 東, 滿月峯·西, 屯岐峯·南, 開花山·北, 北岩山·中央에 洛花峯이 있어 옛날 윤관장군 애첩인 熊女가 장군이 서거하자 심신을 달랠길 없어 고심끝에 이곳 낙화암에서 아래 있는 연못에 떨어져 순절한 후 이름 지은 곳	1	柳山洞	버들뚝	이 마을 뒷산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이름지어진 곳	96
		水作洞	수작골	이 마을은 무건리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맑은 내물이 이곳에 합류 많은 물이 고여 늘노천으로 내려간다 하여 유래	30
	2	開花洞	개화골	이 지역은 개화산하에 분포된 마을 꽃이 활짝 핀 아름다운 곳으로 유래하며 송구봉(宋龜峯)선생이 은거하던 마을	12
		滿月洞	만월대	이 마을 후산 만월봉하에 분포된 지역으로서 보름달 같은 형체라 하여 이름한 곳	10
		熊溪洞	곰 시	이 지역 낙화암 아래 연못에서 옛날 윤관장군 애첩 熊女가 빠져 죽자 곰소 또는 곰시로 이름지어진 마을	36
		淸只洞	청지골	이 지역은 곰사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흘러 너무나 맑다 하여 이름한 마을	133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3	蘆牌洞	노 패	이 지역은 파평산록 응담리에서 금곡리로 넘나드는 기나긴 고개길 옆 전역에 걸쳐 갈대가 무성하였으며 옛날 監役 盧希立가 경연을 베풀어 손객들에게 패를 주었다 하여 유래	91
<b>金 谷 里</b> 이 지역 파평산하 여러 곳에서 금맥이 토출된다고하여 유래된 곳	1	盧項洞	개목이	이 마을 뒤산에 있는 바위모양이 마치 개의 목같은 형태로 생겼다 하여 유래	31
		眼金洞	눈금말	이 마을 전역에 걸쳐 분포된 금광맥이 마치 눈동자 모양의 금이 출토된다 하여 유래	28
	2	鷹 洞	응 골	이 마을 뒤산 형체는 새매가 날아가는 모양을 띠고 있다 하여 이름한 곳	10
		兔藩洞	토끼울	이 마을 뒤 산야에 걸쳐 옛날 산토끼가 많이 번식되어 있어 이름한 지역	11
		石蟹洞	가재골	이 마을은 동쪽 개화산맥 여러 깊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은 냇물에 가재들이 많이 번식하고 있어 이름 지은 곳	100
		長 丞 街 洞	장 승 거 리	이 마을은 응담리와 두포리 법원리를 왕래하는 갈림길 삼거리에서 마을 수호신의 장승을 세워 안내표시를 한 지역으로서 이름한 곳	90
	<b>東 文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변경 당시 동막리의 「東」字와 서원동을 「文」으로 번역되어 이름 지은 곳	1	書院洞	서원말	이 마을은 율곡선생을 비롯한 제자 사계(金長生) 현석(朴世采) 선생 3위를 모신 자운서원이 있는 아래 마을로서 이름 지어진 곳
佛基洞			불기골	이 곳에 옛날 자그마한 암자 불당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이름한 마을	45
淵池洞			못 말	이 마을 앞에 옛날 큰 부자가 살아 연못을 파놓고 고기를 기르고 연못가에 화려한 수양버들과 꽃나무들을 많이 심었다 하여 유래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磧挾洞	차 들 백 이	이 마을 산야에 걸쳐 차들이 많이 박혀 있어 이름 지은 곳	12	
		2	東幕洞	동막골	이 지역 동편 후산맥 내령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형체가 마치 천막을 친 모양이라 하여 유래된 곳	28
			瓢山洞	박 피	이 마을 뒤 산봉이 마치 표주박을 엮어 놓은 형체를 띠고 있다 하여 이름한 곳	36
<b>加 野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당시 가좌동에 「加」字와 야야동의 「野」字를 따서 이름한 곳	1	加佐洞	가좌울	이 마을 주민들은 근검절약하고 주경야독으로 열심히 공부에 주력 출세하는데 상호가일층 도와주자는 뜻에서 유래.	26	
		野野洞	야야골	이 지역은 영편산하 산야를 걸쳐 넓고 넓은 편편한 들로 형성되어 이름 지어진 마을	23	
		鶴 洞	황새말	이 마을 뒤 산야에 울창한 수목이 많이 있어 황새들이 몰려와서 서식하던 지역으로서 유래된 곳.	15	
	2	鷹峯洞	매봉골	이 지역 뒤 산봉은 마치 매형체와 같다 하여 이름한 산하마을	160	
		湖底洞	호저울	이 마을 앞으로 샘제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이곳에서 터져나와 얇은 호수를 이루어 맑고 깨끗한 연못으로서 유래.	113	
		間泉洞	간천말	이 마을 앞으로도 사시사철 샘물이 들끓이 틈에서 많이 흘러 내린다 하여 유래.	25	
<b>大 陵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당시 대의동에 「大」字와 오능동에 「陵」字를 따서 이름 지은 곳	1	虎鳴洞	호명울	이 마을 뒤 산 형체가 마치 호랑이가 엮어 있는 모양으로 나라에서 번고가 있을 때에는 산이 운다 하여 이름한 곳.	20	
		許基洞	허기터	이 지역에는 고려조에 허씨들이 정착 세거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 지어진 곳.	25	
		五陵洞	오능골	이 지역 뒷산에 고려시대 허씨들의 조상들이 문하시중과 상서등 높은 벼슬하던 다섯개 산소가 있어 유래된 곳.	1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新基洞	새터말	이 지역은 근년에 비로소 주민들이 몰려와 새로 집을 짓고 산다 하여 이름한 곳.	35
	2	四街洞	사거리	이 지역은 갈곡리와 금곡리, 동문리, 연풍리로 넘나드는 동서남북 열십자 갈림길로서 이름 지어진 곳.	186
		新市場洞	새시장	이 마을은 근년에 새로 많은 주민들이 몰려와 이곳에 새로 시장을 설치 번영을 이루고 있어 유래된 지역	260
		石橋洞	돌다리	이 마을 서편 삼성대이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울물 가야리 매봉골로 건너다니는 여울에 돌다리를 놓고 다녔다 하여 유래.	198
		狐川洞	여우내	이 지역은 샘재 아래 부분 허허벌판 정가운데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샘재와 삼성대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지상으로 빗발같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 즉시 땅바닥으로 숨어들어 여우같은 개울이라 하여 유래된 곳.	277
	3	將軍基洞	장군터	초리골뒤 장사바위에서 장사가 나와 배나무산에서 말을 타고 내려오다 적군에게 포위 쫓기게 되자 다급한 나머지 칩을 수산 안장바위에다 안장을 두고 워낭골에서 조랑을 떨어뜨리고 뒤우물(付井)에서 물을 마신 후 굴레방다리에서 굴레마져 잃어버린 장수가 오능골 뒷산에서 전사하였다 하여 유래.	55
		大位洞	대의골	이 마을 주민 선비들은 주경야독으로 학덕을 쌓아 품위를 높이자는 뜻에서 이름한 곳.	66
		梧柳洞	오류골	이 마을 주위로 옛날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씩씩하고 울창하게 자라 이름한 곳.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午囊洞	위낭골	이 마을은 옛날 어느 장수가 적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 말모가지에 달아 맨 조랑을 떨어뜨리고 도망갔다 하여 유래.	12
, 三防洞 이 지역 주위 노고산 서북맥 내령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막고있다 하여 이름한 곳		魚遁洞	어둔이	이 지역 깊은 산골 마을 뒤로 둘러싸인 산맥 형체가 마치 큰 고기가 숨어 있는 모양같다 하여 유래.	22
		遁防洞	둔방이	이 마을은 깊은 산골짜기 마을로 사면이 산맥으로 막힌 형국으로서 유래된 곳.	65
		愛龍沼洞	애룡소	이 마을은 노고산 서북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농경지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방을 구축 저수한 곳으로 서맥, 길게 뻗은 산내령의 좌청룡을 극진히 보호하는 뜻에서 이름 지어진 곳.	26
계 10	10	22	70		4,214

여

백

## 월룡면(月籠面)의 내역

〈월룡면 위전리 598-4〉 TEL:945-0009

1896년 이전은 문산읍과 동일하다. 1914년 일제 강점기에 백석면, 자곡면, 오리곡면, 광탄면, 교하군의 아동면 일부로 월룡면을 편제하였으며 6개리(위전, 덕은, 영태, 도내, 능산, 내포리)로 구성되었다. 이후 1973년 대통령령 제6543호로 내포리가 문산읍에 편입 5개리로 구성되었다.

고려말 천정구현 읍지인 뒤산봉들은 광주산맥으로 이어진 고령산 찌꼬리 봉을 지나 북맥 내령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절경과 교하군 청사가 있던 용산골 뒤 정상봉이 배가 떠가는 형국으로서 마치 보름달이 못된 달 모양인데 이 산맥이 다시 양활개를 피고 탄현면 지역으로 북맥과 서맥으로 뻗힌 대소쿠리 모양의 형상으로서 이에 따라 월룡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이며 이산북맥 동남북향주위로 분포된 부락이다.



월룡면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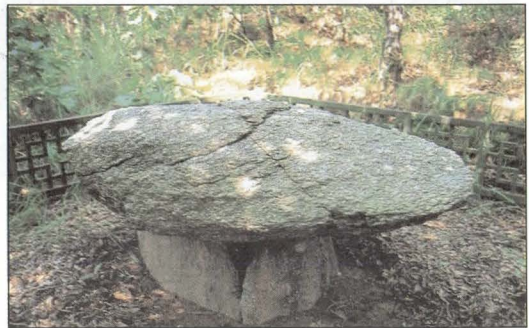
# 월 룡 면



시가지 전경



용추서원



선사 유적지(덕은리)

# 월릉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b>葦田里</b> 이 지역은 광탄천이 흐르는 내가 옥돌내를 이루고 벌판에 갈대밭이 무성하여 이름한 지역	1	堤防洞	제방골	이 마을은 광탄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장마철 홍수로 인하여 해마다 물난리 소동을 벌리게 되어 마을 앞 길게 제방을 쌓아 놓았다 하여 유래된 마을	151
		紫谷洞	자 골	옛날 자곡 면사무소가 소재지 마을로써 주위 산야가 빨간 진흙으로 형성된 곳으로 유래된 마을	50
		盆店洞	동 이 점 말	이 마을 주민들이 물동이와 시루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상품을 흙으로 구어 만들어 팔아왔다 하여 이름한 곳.	13
	2	堂谷洞	당 골	이 마을 뒷산에 흰이 바라 보이는 맑은 물이 흘러 옥돌내를 거쳐 장포로 임진강이 흐르고 서쪽의 월룡산 휴암봉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관인 이곳에 서당이 있어 많은 유학들이 공부를 하였다 하여 유래된 마을	15
		銀香洞	은행말	이 마을 어귀에 오래 묵은 은행나무가 있어 이름한 곳으로 여름철에는 이 나무 밑에서 고담으로 즐기었다는 부락	35
	3	社倉洞	사창이	옛날 이 근처 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상납곡을 저장하였던 큰 창고가 있어 이름한 마을	16
	4	糜洞	본 동	옛날 삼(麻)을 많이 심어 삼대나무가 무성 뻗뻗하게 있어 불려진 마을	43
	<b>德隱里</b>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자연부락 명칭인 덕현동의 「德」字와 은곡동의 「隱」字를 따서 이름한 지역	1	龍床洞	용상골	고려 현종은 만주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당시 이곳 월룡산에 피난 무사히 환도하게 되어 왕이 침식을 오래 하였다 하여 유래된 마을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垞麗洞	대여울	이 부락을 휘돌아가는 뒷산 기슭은 마치 띠를 두른 형상으로 동쪽 해뜨는 것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이름진 곳.	
		龍洲洞	용주말	현 용주서원 앞에 한 그루 큰 고목나무 주위로 편편한 많은 물이 고여 섬모양으로 되었는데 어느날 별안간 검은 구름을 동반 깜깜해지며 폭풍우가 쏟아지더니 용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자 고목이 간데 온데 없어졌으며 큰 연못이 생겼다 하여 유래된 마을로 休庵(白仁傑)선생 거쳐하던 곳이다.	76
		隱谷洞	은 골	이곳에 자리잡은 훈련대장(李堯憲)이 집 앞 연못에 물고기를 많이 길러 인근주민들에게 후한 접대를 하는 한편 어려운 사람들을 잘 살도록 도와주어 숨은 후덕을 베풀었다 하여 유래 되었으며 어은동이라고도 호칭함.	24
	3	培香洞	배향골	은골 고개 바로 넘어있는 마을로 전주 이씨 증시조 도정공 이 병정이 이곳에 정착 후 한 그루의 은행나무를 심어 잘 가꾸도록 유언 후손들에게 예절을 숭상하고 나무를 배양 성장하는대로 문학연구에 힘쓰라 하여 유래	12
		玉石洞	옥돌내	광탄천이 흘러 이마을 앞을 거쳐 장포포로 임진강에 합류하는 곳으로서 靑州史氏始祖인 史公 繇가 죽자 명나라 천자께서 하사한 옥돌비를 정국이 어지러울 때라 이곳에 버렸다 하여 유래됨.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堂峴洞	당 채	이 지역은 옥돌내 부락에서 긴 언덕을 올라가는 고개정상 월룡산하 휴암봉을 거쳐 덕고개를 넘는 풍경이 아름다운 안말 옛날 서당이 있어 많은 유학들의 책 읽는 소리에 왕래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찾았다 하여 유래됨	
		陽知洞	양지말	이 마을 후산 세종대왕 당시 우의정을 지낸 조연부원군이 예장 이래 이 부락 유학자들은 지·덕·노·체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전력하는 한편 지를 더욱 밝게 하였다 하여 유래됨	50
		德峴洞	덕고개	이 마을 바로 고개 넘어 서당이 있어 유학들이 전심을 기우려 주경야독으로 매일같이 고개를 넘나들며 공부에 전념 많은 선비들이 벼슬길에 오르게 되어 언덕을 입었다 하여 유래된 마을	44
	4	鷲山洞	자라피	이 지역은 월룡산 북맥으로 양활개가 뻗은 가운데 내령 양 골짜기 끝머리 우뚝 솟은 자그마한 형체는 마치 자라가 물을 먹는 형국으로 유래된 목장마을	13
英 太 里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자연부락 명칭중 함영동의 「英」字와 한태동의 「太」字를 따서 이름한 지역	1	寒太洞	한태말	옛날 가뭄때 콩을 많이 심어 찬 바람이 불면서부터 겨울철에 즐겨 찾는 콩나물을 길러 시장에 팔아왔다 하여 이름한 마을	180
		新址洞	새터말	이 마을 근처에 부대가 주둔하면서부터 새로 생긴 후 중소기업 공장이 들어와 더욱 활기를 띠게 된 변화한 지역	250
	2	五 十 井 洞	선우물	이 마을 앞 논 골짜기에 井水洞으로부터 내려오면서 50개의 우물이 있어 유래된 곳	8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3	寒沙洞 斗文洞	두문골	이지역은 주위산야에 수목이 울창한 서향 경관이 아름다운 조용한 곳으로 옛날 선비들이 이곳에 서당을 건립, 후덕하고 풍요로운 마을로서 아무쪼록 학문을 닦아 이 세상의 명의를 떨치자는 뜻에서 二十八宿의 '斗'자를 따서 이름한 곳	107
			한사골	먼 옛날에는 이 골짜기로 광탄천이 흘러 내려왔다는 지역으로 땅을 깊이 파면 찬모래가 무진장 나온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발두문이로도 호칭	25
		陰村洞	음촌말	이 곳은 명종 당시 음학인이 공릉 참봉으로 부임 이곳에 정착하여 세거함으로 유래되었으며 인심이 좋은 마을로 숨은 덕을 널리 베풀었다는 것	11
	4	雋英洞	함영골	이 마을 주위 산야에 봄철에는 진달래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며 활짝핀 아름다움과 가을철까지 연속되는 해바라기, 코스모스, 국화 등이 지고피고 하는 꽃향기에 도취하여 유래되었으며 영화를 누린다는 뜻에서 이름한 것	85
都 內 里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자연부락 명칭인 도감동의 「都」字와 내곡동의 「內」字를 따서 이름한 지역	1	內 洞	안 골	이 마을은 골짜기가 깊어 주위로 둘러싸인 청룡백호 내령에 산맥이 약간 높아 피난지역 안말로서 옛날 회공장이 있어 灰谷洞이라고도 호칭	59
	2	都監洞	도감골	이 마을 뒷산 북맥으로 뺨은 내령에 고려 공민왕 당시 도검의부(서정을 총괄)를 설치 도감이라고 부른 관직이 있었는데 이곳에 도감산소가 있어 불려진 곳	44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龍飛洞	용비골	이 부락 뒷산 북맥 끝머리 용의 꼬리부분이며 남쪽으로 쳐다보이는 산봉우리가 마치 용이 머리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으로 이름한 것이며 외도감이라고도 호칭	35
	3	野洞	별 말	이 마을은 광탄천이 흐르는 냇가 별판에 있는 우건이 앞 개울 건너 파주읍과 경계지점에 위치한 부락	26
陵山里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자연 부락 명칭인 능동의 「陵」字와 당산동의 「山」字를 따서 유래	1	棠山洞	당산골	이 마을 뒷산에 아가위 나무가 무성 빨간열매(山査)는 소화약제로 쓰이며 약간의 신맛이 있어 어린이들이 즐기어 먹어 유래된 곳	22
		峨嵋山洞	아가피	이 곳은 옥천 조감선생이 제자들과 이 산하에서 유학을 연구지도 할 때 뒤에 산봉이 너무나 아름다워 중국 산서성에 있는 기암절벽에 경관(苛嵐山)을 상징하고 이름 지은 산하 마을	18
	2	陵洞	능 골	이 마을뒤 산봉은 옛날 경관이 아름다워 國師가 자주 찾아와 놀아 국사봉이라 불리어지며 국사봉하에 능자리를 잡아 유래된 곳이다. 그후 능은 쓰지 않았다 하며 이 근처에 잠시 절이 있었다 함	37
		梨大洞	이대골	이 부락 주민들은 돌배(통배)를 크고 배로 개량 이 근처에 많은 배나무를 심었다 하여 이름한 마을	22
계 5	17	32			1,732

## 탄현면(炭縣面)의 내역

〈탄현면 축현리 877-1〉 TEL:942-9494

1896년 이전은 금촌읍과 동일하다.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현내, 청암, 탄포, 신오리면 각 일부와 오리면, 자곡면 일부를 포함해 10개리였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이를 통합 11개리(축현, 금승, 낙하, 문지, 오금, 금산, 만우, 대동, 성동, 범흥, 갈현리)로 구성 탄포면의 탄(炭)자와 현내면의 현(縣)자를 따서 탄현면으로 개편되었다. 1939년에는 오금리에서 축현리로 면소재지가 이전되었다.



탄현면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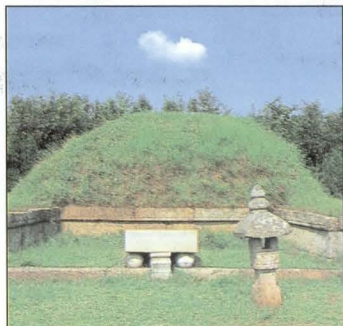
# 탄 현 면



시가지 전경



통일전망대



황희정승묘



장 농

# 탄 현 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b>柎 峴 里</b> 이 지역은 월릉산 기간 봉 준령 서맥이 내려온 높고 얇은 산에 걸쳐 싸리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특히 싸리골서 덕솔로 넘어가는 고개 양편에 무성하여 이름한 곳	1	梨木洞	배 나 무 골	이 마을은 당초 덕수동이었으나 선조대 왕 7자의 증손 남원군(槁)이 정착 후 인근부락에 배나무를 많이 심어 이름하였으며 이분의 고손(孝子) 이유소의 號를 이곡(梨谷)이라 하였다 함	26
		酒街洞	주 청 거 리	이 지역은 바구니고개를 지나 싸리고개를 넘어 광두산 내령을 이은 중간마을로 낙하나루로 가는 길목 잠시 쉬어 피로를 풀며 흥미를 돋구는 곳	10
		憲德洞	헌덕골	문종대왕께서 방촌선생 예장 당시 충효를 바탕으로 文學, 道德, 智慧를 넓힐 것을 간곡히 교시함에 따라 德을 우선 준수하자는 뜻에서 이름한 마을	18
		虺 洞	맹 골	이 부락은 양쪽 산맥 가운데 골짜기 마을로써 산림이 우거진 마을 앞 벌판에서 날라드는 수천마리 메뚜기가 마을을 에워싸아 이름한 곳	10
		大招洞	대초골	세조대왕 7世孫인 백강 이경여를 비롯 3代정승 4인 옥당가로서 증손 우의정 이회지 사망 후 예장시 이곳에 수천명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대소동을 일으켜 이름하였으며 열사피(烈士山)라고도 호칭	10
	2	牛貌洞	소모리	이 부락 가운데로 내려온 산맥의 형체가 마치 큰소가 뛰어 물먹는 모양으로서 호칭	12
		鳥谷洞	새 골	이 마을 주위에 둘러싸인 뒤산에 많은 새들이 몰려와 연정을 속삭여 이름한 곳	21
柎 洞		싸리골	이 마을 뒤산 전역에 걸쳐 싸리나무가 뿔뿔하게 우거져 이름한 마을	2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全興洞	전흥말	이 지역은 광복과 더불어 6.25동란 이후 오금리에 있는 면사무소 청사 이전 후 많은 주민들이 모여 들어 형성된 부락이나 옛날 이 곳 전 지역이 융성 발전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란 뜻에서 이름한 곳이라 한다.	79
		背駱洞	배락골	이 부락 뒷산은 말(노쇠)의 등모양으로 되어 배락산으로 이름한 것이며 산하동향으로 분포된 마을은 경관이 아름다워 이름한 곳	30
		牛尾洞	우미골	양편으로 둘러싸인 산맥 가운데 내령은 마치 소가 누워있는 형체이며 꼬리부분에 있는 마을로서 이름한 마을	10
	2	德術洞	덕 술	이 부락은 당초 덕수동이었으나 문종대왕이 방촌 선생 예장시 충효를 바탕으로 文·德·智를 넓힐 것을 간곡히 교시함에 따라 우선 덕과 예술에 힘을 기울이고자 하여 이름한 곳	23
		月峯洞	월봉재	이 마을 앞산봉은 뒤 월룡산 기간봉하 새끼봉이 아름다운 경관으로 사철 부락사람들이 오르 내리며 특히 정월보름에 달맞이 산으로 이름한 곳	15
<b>金 蠅 里</b> 이곳 주위에 월룡산맥에는 여기저기로 금맥이 분포되어 있어 광산하는 사람들에 의해 토굴 작업을 하여 보았으나 파리똥 모양 만큼의 소량이 매장되었다 하여 이름 지은 지역		新實洞	새 실	이 마을은 이조판서 이인신이 조선조 중종대왕시 이곳으로 낙향 아담한 새집을 짓고 문학에 전념 후손들에게 착실히 살라는 뜻에서 이름한 곳	10
		戊德洞	무덕골	문종대왕이 방촌선생 예장 당시 文·德·智를 넓힐 것을 간곡한 교시로 이 부락 유림들은 우선 덕을 하늘과 같이 높이자는 뜻에서 이름한 마을	23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碑街洞	비 석 거 리	이 마을 어귀 도로변 장수산하에 방촌선생의 손자 장계 부원군 황정록의 순결비각이 세워진 이후 이름 지은 마을	20
		御峯洞	어봉골	방촌 황희정승이 9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 예장으로 모실때 문중께서는 군신지의에 정례로 직접 이곳에 내려와 조문한 자리에서 묘 앞에 산봉을 가리켜 정표로 어봉으로 부르도록 중신과 유림들에게 하명하며 이름한 산하 마을	30
		酒幕洞	주 막 거 리	이 마을은 바구니 고개를 거쳐 싸리고개, 주청거리, 배나무골 앞 별판 건너있는 곳으로 낙하나루를 이은 중간마을 송도 서울을 갈 때 먹고자고 여정을 풀던 지역으로 이름한 곳	26
		閑山洞	한산말	이 부락 주위 둘러싸인 산하 마을로 주막거리 이웃에 위치하여 서울로 가는 손객들의 말을 재우고 먹이던 곳으로 이름한 호칭	30
洛 河 里	이 지역은 옛날 신지강을 거쳐 독개나루를 지나 낙하라고 이름하였으며 이 마을 앞으로 낙하가 흐르는 이곳 장단을 거쳐 송도 서울을 넘나들던 낙하나루가 있는 아담하고도 변화하였던 지역으로서 이름한 곳	玉田洞	옥밭골	이 부락 뒤로 둘러싸인 산기슭에 있는 밭들이 좋아 곡식이 잘 되어 구슬같이 소중한 밭이라 하여 이름 지은 마을	36
		安基洞	안 터	이 마을은 임진강변 위 낙하나루 건너편 안전한 곳에 위치하였으며 앞뒤산으로 울타리 병풍이 되어 아늑한 동향마을로서 이름한 곳	25
		渡 臨 浦 洞	도림개	이 곳은 낙하나루 상단의 개풍, 송도, 서울을 건너 다니는 선착장이 있어 임진강을 건너 다니는 포구라 하여 이름한 마을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b>文 智 里</b> 이 지역은 어봉동 앞에 있는 곳으로 방촌선생 예장시 문종대왕의 간곡한 교시에 힘입어 우선 문학과 지혜를 넓히자는 뜻에서 이름하였으며 충효를 바탕으로 예절에 극진 칭송이 자자한 아름다운 마을		珍谷洞	진 골	이 마을은 어봉동 바로 건너 있어 문종대왕이 방촌 선생 예장당시 文·德·智를 넓힐 것을 간곡한 교시에 힘입어 문과지를 보배같이 여겨 실천하고자 하여 이름한 마을	15
		符睡洞	부추골	이 부락 주위로 둘러싸인 동향마을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편에 옛날 큰 바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경계비라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으나 이 돌을 건드리면 재앙이 따라 주민들은 마귀할머니 부추들이라 하여 해마다 무당들이 모여 대동굿을 하고 있다 한다	46
		驚 姿 磗 洞	자자락	이 마을 위쪽 산하 바위가 있는데 마치 자라가 물을 먹는 형체로서 자라모양의 바위(驚姿磗)이라 하여 유래한 곳	30
<b>뽕 今 里</b> 조선조 세조대왕을 도와 정관공신 우참찬으로 밀산군이 된 朴仲孫이 사망하자 명지사가 묘지를 물색중 월룡산 하 아가산 내령에 명지가 있을 것을 예측, 임진강이 둘러싸인 내령 매봉재를 거쳐 신선봉 끝머리의 구미봉까지 살살이 뒤져보아도 명지를 찾지 못해 호피산 머리에 이르러 서성거리던중 갑자기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 이상	1	武將洞	무장골	이 마을 고개너머 지르목 나무가 있어 옛날 이 고개와 아래있는 신선봉과 끝머리 구미봉에 진지를 구축 무장들이 수비하면서 개풍땅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검문검색 하였다 하여 이름한 마을	25
		叱 轔 目 洞	질오목	조선조 세조대왕 당시 밀산군(密山君)이 사망하자 명지사가 명당자리 묘지를 월룡산 북맥 아가산을 지나 배봉재 신선봉 끝봉인 구미봉까지 뒤져도 찾지 못해 까마귀 우는 소리에 도움을 받아 대지를 물색하게 되자 이곳에 다시 내려와 탄복하여 말하기를 나의 눈을 꾸지꿨다 하여 유래된 마을	51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하계 생각한 지사는 다시 매봉에 올라 자세히 살피니 대지가 있는지라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눈이 멀었다 하며 아름다운 까마귀가 나를 도와 일러 주었도다(烏告美)후일에 품수으로 개칭된 지역	2	炭浦洞	탄포말	이 마을은 신성봉하 옛날 탄포면 소재지로 금승리와 축현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임진강으로 흘러 포구를 이르는 어귀, 이 근방에서 토탄이 많이 나와 土炭과 浦口지역이라 하여 이름한 안마을	40
		智來洞	지래골	이 마을은 문종대왕이 방촌선생 조문시 유학들에게 충효를 바탕으로 文·德·智를 넓힐 것을 교시함에 있어 우선 지혜를 베풀어 근면하게 살자하여 유래된 마을	10
		道谷洞	도곡말	문종대왕이 방촌선생 예장 당시 유학들에게 충효를 바탕으로 文學·道德·智慧를 넓힐 것을 간곡한 교시를 함에 따라 우선 道와 德을 기반으로 하자 하여 이름한 마을로 옛날 그릇을 구어 만들던 곳으로 陶谷으로 호칭	36
		珍田洞	진밭골	이 마을은 매봉이 양활개를 피고 둘러싸인 골짜기 산기슭 밭이 있어 조강하여 곡식이 잘되어 귀중한 밭이라 이름한 마을	12
		薪谷洞	나무골	이곳은 호피산 건너있는 앞 뒤산으로 둘러싸인 자그마한 골짜기 주위 산에 나무들이 무성하여 겨울이면 빨나무를 많이 하던 지역으로 이름한 마을	18
錦 山 里 이곳 보현산은 기암절벽으로 보현봉을 위시 선무봉, 문필봉이 여기 저기 삐죽삐죽 솟은 경관은 더욱 아름다우며 주위로 말없이 흐르는	1	牛舞洞	우무골	이 부락뒤 배락산 동맥 산하에 마치 소형국의 동체가 춤을 추는 현상으로서 이름한 마을로서 보현사 절이 있어 절골로도 호칭	2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임진강물은 파도와 더불어 삼도품에 절을 하고 사면을 바라보는 전망대가 너무나 화려하고 신기한 산모양이라 하여 이름한 지역		鳥集洞	새모리	이 부락은 보현동 동맥 끝머리 산기슭에 있는 곳으로 뒤산에 나무가 무성하여 앞뜰에 내려 오르며 수많은 새들이 모여 연정을 속삭이며 놀던 집합장소로서 이름지은 마을	29	
		絲匠洞	사잡이	이 지역은 뽕나무를 많이 심어 물래로 실을 뽑아 명주옷을 만들어 입고 팔아왔다 하여 유래된 마을	26	
		2	鳳村洞	새 말	이 부락은 보현봉하 동향마을로 옛날 뒤산에 나무가 무성 수시로 봉황새가 왕래하여 깃드린 곳이라하여 이름한 마을	11
		仙舞洞	선무루	이 마을 뒤 보현봉 아래 동맥 내령 자그마한 산봉은 마치 신선이 춤을 추는 현상 같다 하여 이름 지은 골짜기 마을	22	
萬 隅 里 각처에서 모여드는 여러 사람들은 지르목 나무를 건너기 위하여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만나는 장소로서 이름 지은 지역		新 梧 里 洞	새오리	이 마을은 옛날 신오리 면소재지로서 당시 근처에 있는 산야에 걸쳐 오리나무를 새로 심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도덕을 일상 생각하자 하여 道念洞이라고도 호칭함	34	
		彦溪洞	언계말	이 마을은 보현동 북맥 내령 끝머리 지르목으로 건너 다니는 탄포개울 송도 서울로 과거를 보기 위해 각처에서 모여드는 선비들이 이 마을을 지나 개울에 놓은 징검다리를 건너다닌다 하여 유래된 곳	30	
		陣谷洞	진 골	옛날 이 부락 뒤산에 진지를 구축 임진강에 오르내리는 배들을 검색하였으며 삼국시대에 격전지로서 이름 지은 산하 마을	3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五仙洞	오선대	이 마을은 보현봉서맥 내령 끝머리 임진강변 경관이 아름다운 자그마한 봉우리 수시로 다섯신선이 내려와 오선대 바위에서 놀고 올라갔다 하여 이름한 곳	40
大 洞 里 이 마을은 임진강변 포항 주민들이 많이 모여들어 번창하였다는 곳으로 이름한 지역		浦項洞	포항말	이 마을 앞 흐르는 임진강변 고기잡이 배와 상선들이 이곳에 머물러 있던 포구 마을로서 변화한 지역으로 유래된 곳	41
		大谷洞	큰 골	이 마을 골짜기가 광활하고 생수가 풍부 한 농지가 많아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다는 부자마을로 이름한 곳	12
城 洞 里 이 마을 주위 한록 산맥은 서맥으로 모두 산봉에 그치고 북맥으로 보현봉을 이루어 옛날 이산정에 성을 쌓놓은 격전지 방어하였었다는 산하 삼태안 골짜기에 분포된 부락으로서 유래되었으며 주위 임진강이 흘러 삼도품과 김포, 강화, 개풍땅을 바라보는 요충지역		新基洞	새터말	이 마을은 한록산하 산기슭에 있는 곳으로 6.25동란 후 새로 터를 잡아 거주하고 있어 이름하여 유래	12
		遙風洞	요풍이	이 부락 앞으로 임진강물이 흘러 여름철에는 특히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 뜨거운 복중에도 땀을 모르고 지낸다 하여 유래된 마을	13
		作窟洞	작 굴	교하노씨 시조 盧穗는 范陽 사람으로 安祿山의 난을 피해 9자를 데리고 우리나라에 귀하 그의 아들중 塢의 후손 康弼이 杞溪에 세거, 본관을 章山으로 하다가 고려초 태조를 도와 개국공신이 되어 선성 부원군에 봉해진 다음 교하로 적을 옮겨 후손들이 交河로 계관 盧句之가 오두산말 이곳에 큰 굴을 파놓고 자손들에게 학문을 익히도록 하여 유래되었으며 오두산 정기에 힘입어 3대정승 開, 思愼, 公弼을 배출한 곳	15
		泉凸洞	샘철이	한록산으로 둘러싸인 사이 양편골짜기 산하기슭에 많은 샘 우물이 넘쳐흘러 이름한 마을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大村洞	큰 말	이 부락 주위에 둘러싸인 한록산 기슭 남향에 위치 아늑하여 앞뜰에 전답이 광활, 풍수해를 모르는 요부한 곳 주민이 많이 모여든 큰 마을	62
<b>法 興 里</b> 이 지역 유학들도 문종 대왕이 방촌선생 예장 당시 배알할때 文學道德과 智慧, 法을 지켜 넓히도록 간곡한 교시에 힘입어 우리마을 사람들은 우선 법을 준수하는데 앞장서 학문을 익히며 덕을 베풀어 지혜롭게 살자하여 이름 지은 분포 부락	1	大王洞	대왕골	이 마을뒤 산봉이 있는데 월룡산 서맥내령 바구니 고개를 거쳐 인왕봉을 이은 이 봉우리는 약산 끝머리 송리산봉 4개 봉우리중 제일 높은 곳으로 이름 지은 산하마을	17
		藥山洞	약산골	이 산 주위에 약초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을철이면 약초를 뜯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들어 이름한 산하마을	44
		陰地洞	음달말	이 마을로 인조대왕릉 산맥내령으로 약산동 마주 보이는 음달쪽 산하 북향마을로서 이름한 곳	11
		鶴鳥洞	황새말	이 마을은 음달말 너머 양지쪽에 위치 뒤산에 나무가 무성하여 이곳에 황새들이 깃드린 지역으로 이름하였으며 산하약수가 있는데 다리가 부러진 황새가 이 우물에 씻고 먹으면 낫는다는 신기한 우물이 있다 한다	16
	2	菊園洞	국원이	이 곳 뒷산 형세가 마치 개가 숨어있는 모양으로서 당초에는 구은이(狗隱里)라 하였으나 행정구역 변경 당시 주위 산야의 국화나무가 많아 개칭된 마을	26
		荊川洞	가시내	이 마을 주위 사면으로 삐죽삐죽하게 내려 뺨힌 산맥은 마치 가시가 돋힌 모양으로 되어 이름한 곳이며 사이사이 골짜기 마을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합류 남쪽으로 흘러 내리어 유래된 곳	3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3	筐峴洞	바구니 고 개	이 마을은 고개안말 가을철 축현리 싸리골에서 싸리를 베어서 한짐 지고 오다가 이곳 시원한 바람에 도취 싸리를 내려놓고 바구니를 만든 고개라 하여 유래	10
		德山洞	덕산말	이 마을에 유림들은 문종대왕이 방촌선생 예장 당시 文·德·智를 넓힐 것을 간곡히 부탁한데 힘입어 우선 덕을 산과 같이 베풀자 하여 유래된 마을	18
		鷹 洞	응 골	이 마을 뒤로 둘러싸인 산형체가 마치 매가 양활개를 활짝피고 날아가는 형태로서 이름한 산하 마을	13
	4	松峴洞	솔고개	이 마을 주위 뒤산에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으로 탄현면사무소로 넘나드는 고개가 있어 이름 지어진 고개 아래마을	14
		社倉洞	사창이	이 부락은 호장산하 기슭에 분포된 마을로 옛날 이근처 세곡을 건어들여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가 있어 유래된 마을	12
		佛堂洞	불당골	옛날 이 부락에 부처를 가지고 도승이 나와서 암자를 짓고 불도를 권장하며 살던 곳이라 하여 이름한 마을	10
		濕浦洞	저전개	옛날 이 부락 앞까지 삼도품 조수물이 오르내리던 포구, 작은 고기잡이 배가 수시로 왕래하며 정착하던 개포래 마을로서 이름한 곳	12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葛 峴 里 이 지역은 옛날 교하현 청사와 현내면 소재지로서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 당시 장터로부터 인왕산 내령을 넘어 저진개로 가는 고개길 양편 산야에 칩덩굴이 너무나 무성하여 이름한 곳	1	縣內洞	골안말	이 마을은 연산군 당시 아골서 교하현 청사가 이전된 곳이며 현내 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1731년(영조 7) 장룡이 이곳으로 천봉됨에 따라 교하군으로 승격 현금촌읍 금능리로 청사가 이전 되었으며 구한말 행정 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현내현과 탄포면, 신오리면이 통합철폐되어 이름 지어진 마을	20
		場址洞	장 터	이 부락은 옛날 교하현 청사가 있을 당시 생활 필수품과 아울러 곡식, 가축시장이 생기게 되어 번화하였던 옛 장터 옛 마을	30
		新村洞	새 말	이 마을은 교하현 청사가 정착한 후 주민들이 몰려 들어 새로 생긴 부락으로서 이름 지은 곳	26
		葛 洞	칩 골	이 마을 주위 산림이 우거진 골짜기로서 특히 칩덩굴이 산야를 덮어 이름 지은 곳	10
	2	中村洞	중간말	이 부락은 장터마을 아래 중간에 위치한 곳이라 하여 호칭된 남향편에 있는 아담한 지역으로 아름다우며 요부한 마을	36
		末村洞	끝 말	이 부락은 장터마을 끝머리에 위치, 남향으로 광활한 벌판을 바라보는 경관이 찬란한 부유한 마을	35
	3	陣舊洞	진구지	옛날 이 끝머리 산봉에 진지를 구축 이 지역을 수비하였던 곳으로서 유래되었으며 사면을 바라보는 경관이 아름다운 마을	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長串洞	장곡촌	이 마을은 아담한 지역으로 세조대왕 7세손인 우의정 백강 이경여가 부여에서 이곳으로 정착 3대를 걸쳐 4정승(민서, 관명, 건명, 휘지)이 배출된 곳 이 산 내령은 월룡산 준령을 거쳐 바구니 고개를 지나 인왕산하 남맥 골안말로 부터 지나간 구능선으로 형성 攸챙이 모양에 장구같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거북이 등과 같다하여 長龜洞으로도 호칭	10
		溝浦洞	갯마을	이 곳은 마을 앞까지 조수물이 드나들어 개포래를 형성하였으며 장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흘러 이름한 지역으로서 끝머리 야산봉에 옛날 정승 노사신이 퇴관 후 요양하던 노정이 있었으며 그때 심은 느티나무는 노정승의 거룩한 얼을 추모하여 수백년을 묵묵히 자라고 있다	51
계	11	20	70		1,670

## 교하면(交河面)의 내역

〈교하면 교하리 388-3〉 TEL:941-5089

1896년 이전은 금촌읍과 동일하다.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와동, 지석, 석곡, 청암면에 14개리였으나 1914년 일제 강점기에 와동면과 지석면을 병합하여 와석면으로 개칭하였고 7개리와 석곡면 청암면을 병합 청석면으로 9개리로 개편후 1934년 와석면과 청석면을 통합 16개리로 개편되었다.

심학산 서편 한강하류와 동북쪽에 흐르는 임진강 하류 동쪽에서 내려오는 공릉천(휴율강)이 합류하여 삼도품을 이루어 강화, 김포 사이로 흘러 황해바다로 오르내리는 조수 역시 이 삼도품으로 교하되어 호칭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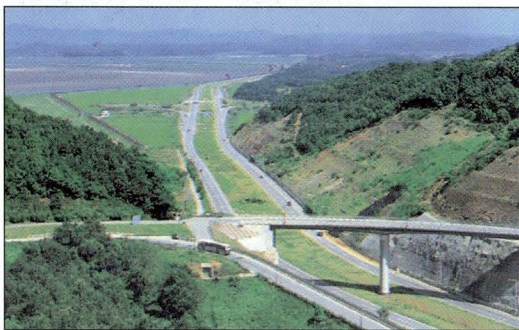


교하면사무소 전경

# 교 하 면



시가지 전경



자 유 로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 교 하 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b>交 河 里</b> 한강, 임진강, 휴율강이 각각 하류서 교하와 합류되어 삼도품을 이루고 김포와 강화사이로 흘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지역, 옛날 교하현 관아가 있던 구읍지		冰庫洞	빙고재	이 마을은 옛날 교하현 관아가 있을 당시 여름철 얼음창고를 설치하였던 장소로서 이름난 곳으로 유래	38
		漚瓢洞	함박골	이 마을은 옛날 교하현 관아옆에 있는 곳으로써 관아에 불일이 있는 손객들이 쉬며 먹고 자고 하던 지역으로 집집마다 지붕에 바가지를 심어 박꽃이 너무 아름다워 이름난 곳	40
		宣城洞	선성말	옛날 이 마을은 선성현 관아가 있던 곳으로 1418년 교하현으로 개칭됨에 따라 이름하게 된 지역	53
		太平洞	태평골	이 마을은 옛날 양반이 많이 살았다는 남향편으로 아늑하고 아담한 지역으로서 매우 평화로운 마을이다 하여 유래된 곳	36
<b>下 支 石 里</b> 이 지역 뒷산 옛날 지석묘군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름지어 진 곳		朽栗洞	썩은 밤 이	이 지역은 산골짜기로 형성되어 많은 밤나무를 심었으나 가을철 미쳐 손이 미치지 못해 아람이 전부 썩어 늦장마에 강으로 떠내려와 유래	49
		凜池洞	늪못이	이 근방 타지역에는 우물을 파도 물이 안나온다는 곳이나 유독 이 마을산하에 얼음같이 차디찬 샘물이 쏟아져 연못을 파서 식수와 농경지 용수로 이용되고 있다하여 유래된 마을	20
		津址洞	나루터	이 곳은 옛날 휴율강 건너 검산리로 통행하는 손객들을 배로 건너 다니던 나루터로써 유래되었으며 火橋洞으로 호칭	10
<b>上 支 石 里</b> 이 지역 뒷산에 지석묘군이 분포되어 호칭되었으며 지금도 학봉중턱에 거대한 지석묘가	1	石 洞	고인돌	옛 선사시대에 무덤을 파고 양편에 큰 돌을 고여 놓고 위 반석같은 큰 바위로 뚜껑을 덮어 장례를 치러 왔는데 이곳에 여기 저기 분포되어 이름난 곳	1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있어 문화유적으로 보존하고 있음		內谷洞	안 골	이 주위 뒷산이 둘러있는 학의 머리부분의 형국, 남향을 바라보는 아늑하고 아담한 마을로서 이름 지은 곳	33
		松下洞	솔아래	이 마을 뒷산 전역에 걸쳐 소나무가 무성 아름다운 경관으로 뻗뻗하게 있어 이 소나무 아래 북향마을로서 이름한 곳	25
		告鵲洞	고작골	이 뒷산에는 까치들의 집합 장소로서 이 리저리로 날아들며 사랑을 속삭이고 수시 지붕에 날아와 기쁜소식을 전해준다 하여 유래된 곳	30
	2	磧挾洞	차 돌 백 이	이 마을 골짜기 뒷산에는 투명한 흰 돌이 여기저기로 박혀 있어 이름 지어진 곳	10
		鳥谷洞	새고래	옛날 이 마을 뒷산에 초목이 울창 각종 새들이 모여 서로 사랑을 나누며 이 골짜기를 왕래하던 지역으로 이름 지은 곳	16
		蟻谷洞	개미골	이 마을은 6.25동란 후 새로 생긴 마을로 장단 이북사람들이 집단 거주지로서 밤을 낮 삼아 근면과 절약을 신조로 피나는 눈물의 결점으로 부호마을을 이루어 부지런하고 의리에 뜻을 담아 이름한 곳	105
		煉瓦洞	연와골	이 마을 벽돌공장이 설치되어 있어 이름한 마을	70
	3	內陵洞	아능안	이 지역은 공·순·영릉 중 순릉이 마주 건너다 보이는 곳으로 이 마을로 안을 하고 있다 하여 유래, 아늑한 동향마을	35
		新 洞	새 말	이 지역은 죽원리를 바라보는 동향편에 위치 뒤에 산이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로 생겼다 하여 유래된 곳	18
		外陵洞	밖능안	이 마을은 내능동 후면 능선에 위치한 곳으로서 영릉을 밖에서 바라본다 하여 유래된 곳	2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塔山洞	탑산골	이 지역에 옛날 평지암이란 암자가 있어 칠층의 탑을 건립하였는데 탑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건너마을 처녀들이 바람이 난다 하여 내려 놓았다 쌓았다 하며 서로 싸움을 하였었다는 전설로 내려오고 있으나 현재는 폐철되어 바탕만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유래	23	
		4	草堂洞	초당골	이 마을 뒤 황룡산하에 학봉이 있어 이곳에 옛날 초당을 건립, 여러 선비들이 공부하였다 하여 유래	25
			新基洞	새터말	이곳은 평지에 있는 마을로서 새로 마을을 만들었다 하여 이름한 마을	19
			鳩山洞	비둘피	이 지역은 운정고개를 넘어가는 황룡산 북맥야산으로서 초목이 울창 비둘기들이 수백마리가 몰려와 들로 산으로 왕래하며 즐기고 사랑을 속삭이던 곳으로 이름 지은 마을	13
		5	慶安洞	경안말	이 지역은 운정역 근방에 있는 새로 생긴 아파트촌으로서 안락하고 경사스럽게 잘 살자 하여 이름한 마을	148
堂 下 里 이 지역 뒷산에 옛날 산신당이 있어 매년 동리 사람들의 무사고를 발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무당을 들여 대동굿을 하게 되어 당이 있는 아래 마을로서 유래		鶴 洞	황새말	이 부락 후산에 오래 묵은 나무가 울창, 수백마리의 황새가 광활한 앞뜰을 왕래 서식하였던 곳으로 유래되었으며 왜가리골로도 호칭	50	
		寺谷洞	절 골	이 곳은 옛날 암자가 있어 유래되어 오던중 뒷산너머와 초동에 판도공 윤승배 사당을 건립하게 되자 문성왕후는 석불을 성지암으로 명명 이곳 암자를 설치 승녀가 발원을 축원하고 수호하게 되었다 한다	34	
		瓦家洞	와가골	이곳에 윤원형 정승 등 여러 기와집을 짓고 살게 되어 이름지은 마을	1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互 洞 里 이 지역에는 옛날 파평윤씨 권문들이 많이 살고 있어 당시 기세가 날로 왕성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있었다 하여 유래된 곳	1	氣 勢 藩 洞	기세울	이 지역에 세거하고 있는 파평윤씨가 조 선조 세조대왕 이후 국구부원군이 세 분, 공신부원군이 세 분 성장한 곳이며 또한 그의 자손들이 높은 벼슬길에 올라 세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여 타인들이 부르게 된 마을	12
		丙村洞	안 말	이 마을 역시 기세울 안쪽에 있다 하여 부르게 된 기와집들이 많은 곳으로 불리우게 된 지역	49
	2	沼址洞	소터골	이 마을은 옛날 어떤 부자가 집 앞에 연못을 파서 고기를 길렀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새말로도 호칭	36
		馬藩洞	말우물	이 마을은 뒷산 형국이 목마른 말이 앞의 우물에서 물을 먹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 유래되었으며 음달말로도 호칭	10
		陽地洞	양지말	이 마을은 뒷산이 둘러싸인 동양편으로 앞이 훤히 트여 아늑한 지역으로서 유래	20
		芝山洞	지산말	이 마을 뒷산에 아름다운 금잔디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름 지어진 야산 아래 남향마을	10
	3	黔岩洞	금바위	이 마을 뒷산 주위로 아름다운 검은 바위가 여기저기 깔려있어 이름한 곳	30
		烏 炙 美 洞	오구미	이 지역은 언덕 능선이 내려 뻗어있는 평지로서 까마귀들이 자주 내려와 연정을 나누며 즐겁게 울면서 놀던 곳으로 이름한 곳	10
		鳩縹洞	구 울	이 지역 산마루에 잠목이 울창 알록달록한 산비둘기들이 떼를 지어 이곳에 오르내리며 비단 물결을 이루었다하여 이름한 지역	3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雉田洞	평밭골	이 마을 산하 콩밭에 평이 아침 저녁으로 내려와 심은 콩을 전부 파먹어 이름 지은곳	14	
		烏野洞	오야골	이 주위 야산이 둘러있는 지역안 골짜기 평야지대에 까마귀들이 몰려와 놀았다 하여 이름한 곳	10	
		4	斗谷洞	말 골	이 지역은 二十八宿中 「斗」字를 붙혀 후덕하고 인심 좋은 풍요로운 마을로서 이름하였으며 옛날 마을 주위 산야에 걸쳐 상수리, 도토리 나무가 무성하여 많은 도토리가 열려 호기심으로 나무들을 어루만지며 보호하였다 하여 摩門洞으로도 호칭	37
		石峴洞	돌고개	이 마을에서 목동리로 올라가는 언덕 고갯길에 많은 돌이 깔려있어 이름 지은 지역	30	
木 洞 里 이 마을을 둘러싼 뒷산에는 나무들이 울창, 벌두메 산골 인근주민들이 모두 여기서 겨울 나무를 하였다 하여 나무골로 호칭		關鷹洞	생 매	이 마을 형체가 마치 큰 매형국으로 되어있어 이름한 지역	10	
		麥束洞	보 리 목 골	이 마을 주위 보리밭에 보리단이 하두 탐스럽게 보여 어려운 사람들이 이름한 곳	15	
		塞谷洞	새 골	이 지역은 매봉내령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남행으로 오곡이 가득차 있는 풍요로운 마을로서 이름하였으며 안골짜기에 있어 내곡동이라고도 호칭함	28	
		楠檜洞	남 월	후산내령으로 길게 뻗힌 아래 마을에 아름다운 매화나무를 심어 이름하였으며 큰말로도 호칭	2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野塘里 이 마을앞 별판으로 내려오는 개울이 매년 홍수로 말미암아 수가에 깊은 웅덩이가 생겨 여름철에는 물고기를 잡으며 목욕을 하였다 하여 유래된 곳	1	機池洞	틀못이	이 마을 위 골짜기에 옛날 큰 부자가 살아 정원 앞에 연못을 사방 집 모양의 나무말장으로 덮을 대고 만들어 마치 기틀에 연못같다 하여 호칭	35
		蒿谷洞	숙 골	이 마을은 주위 야산이 둘러싸인 골짜기로서 숙이 많이 번성하여 이름한 지역	10
		巢雉洞	소 치	이 마을 뒤 야산 골짜기 마을로서 꿩이 많이 내려와 보금자리를 펴고 놀던 곳으로 이름한 지역	10
	2	薜美洞	선미골	주위 야산에 흩어진 바위마다 오색을 띤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름한 마을	13
		鵲村洞	까치말	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야산에 까치들이 몰려 조석으로 기쁜소식을 알려주며 연정을 속삭이며 놀고있다 하여 이름한 곳	30
		到磊洞	도뢰이	이 마을 주위 능선을 비롯한 산야에 잔돌이 무수히 많이 나와 이름 지은 곳	40
		鷹峯洞	매봉골	이 마을 뒤산 봉우리가 마치 매가 앉아 사방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이름한 곳	13
		石井洞	동정골	이 마을 뒤산 내령으로 자연수가 돌틈에 흘러내려 물 맛이 좋아 이름한 곳	10
	3	雲井洞	운정말	이 마을은 황룡산 내령 끝부분에 있는 골짜기 수령 논이 무수히 많아 일상 수십군데 우물에서 나오는 운기가 이근동에 자욱하여 안개구름을 이룬다 하여 호칭	120
		鳩井洞	구 우물 이	이 마을 주위 산야에 수백마리 산비둘기들이 조석으로 이 우물에 내려와 물을 먹는다 하여 호칭	87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4	鶴峴洞	하 우 고 개	이 마을은 황룡산 서쪽 내령 수목이 우거져 있는 지형으로 수백마리의 학이 깃드린 곳으로 서로 연정을 베풀어 오르내리며 이리저리로 왕래하는 모습이 고개를 형성한다 하여 유래된 곳	55
		翻躍洞	번뛰기	이 지역 편편한 능선 평야지대에서 학의 새끼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재미있게 놀던 곳으로 유래	17
	5	松鶴洞	송학골	이 마을은 야산으로 형성되어 송림이 우거진 수 많은 학들이 학현동에서 왕래하며 놀던 곳으로 유래, 장단군민이 집단 수용하던 곳	36
<b>東 牌 里</b> 이 마을은 옛날 심학현에 소속되어 이곳 동편 다리에 고양군과 경계로하는 표시, 말뚝을 설치하게 되자 동쪽에 경계팻말이 있는 지역이라 하여 이름한 곳	1	插橋洞	삽다리	옛날 고양군과 심학현이 있을 당시 이 다리를 경계로 하여 말뚝 팻말을 박아 표시하였던 지역으로서 유래되었으며 지금에도 이 지역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場基洞으로도 호칭	50
		內 插 橋 洞	안 삽 다 리	이 마을은 경계 표시 말뚝다리 안말 골짜기에 있다 하여 불려진 곳	30
		芳 洞	방 골	이 마을은 뒷산이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집집마다 갖은 오색 꽃 나무들을 심어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하여 유래된 곳	15
	2	岩藩洞	바 울	이 지역은 후산이 둘러싸인 아늑한 마을로서 바위로 울타리를 하였다 하여 유래된 곳	35
		棗谷洞	대추골	이 마을은 집집마다 대추나무를 많이 심어 가을에 대추가 울긋불긋 아름다워 이를 지은 곳	26
		涼地洞	양지말	이 마을은 여름철 서패리 앞 강바람이 불어 시원한 지역이라 하여 이름지은 곳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3	案谷洞	안 골	이 지역은 옛날 심학현이 있을때 관아가 있었던 마을로써 교하현과 합병됨에 따라 폐철된 아늑한 골짜기에 있어 유래	10
		坊谷洞	막은골	이 마을 골짜기 아래 침수를 막기 위하여 재방을 쌓아 저수하였던 곳으로 호칭	31
		桶谷洞	송 골	이 마을 뒷산 기슭 동향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에 옛날 서당이 있어 주야로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이름 지어진 곳	20
	4	外 岩 藩 洞	밖바울	이 부락은 암번동(바울) 등 넘어있는 마을로 아늑하고 조용한 지역	15
		內村洞	안마을	이 지역은 서향으로 위치 뒷산이 둘러싸인 아늑하게 깊숙히 들어있는 마을이라 호칭	16
		盆店洞	동 이 집 말	이 마을은 6.25동란 이후 외래민들이 새로 이곳에 정착 전주민들이 동이, 옹기 등을 구어 만들던 지역으로서 호칭	18
		降 實 陵 洞	강실릉	이 지역은 청석에서 수무골을 지나 두일동으로 넘어다니는 능선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고갯길 아래 집 울타리 모양으로 생긴 아늑한 마을로 주위 산열 매열들이 많이 있어 유래	13
		斗溢洞	두 일	이 마을은 옛날부터 풍요로운 부자 동네로써 일상 인심이 좋고 후덕한 마을이라 하여 말이 넘친다는 뜻은 二十八宿의 「斗」를 표한 것으로서 호칭	12
	牛峴洞	소고개	이 마을 뒷산 내령이 마치 큰 소가 별판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새터말로 넘어다니는 고갯길이 소의 목과 같다 하여 붙여진 곳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5	船積洞	선적골	이 부락 뒷산이 불룩한 모양이 마치 짐을 가득히 실은 배가 부두에 정착한 형태를 띄고 있는 주위로 분포된 산하마을	10
		新基洞	새터말	이 마을은 근년에 새로 생긴 마을로서 아늑한 골짜기로 형성된 부락 집단	36
山 南 里 이 마을은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하류강변에 분포된 지역으로 후산인 심학산 남쪽에 위치하였다하여 호칭		楫隱洞	이 수 무 골	이 지역 뒷산에 느타리버섯이 많이 분포되어 숨어있다 하여 유래된 마을	13
		還川洞	도내말	이 마을 앞으로 한강 개울물이 돌아나간 다 하여 이름한 지역으로 후산 누런매화 나무를 많이 심어 黃梅洞으로도 호칭	25
		蜈橋洞	오다리	이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가는 냇가에 다리는 옛날 우측으로 걸쳐 놓아 마치 지내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곳	15
		鼓像洞	고상골	이 지역 형체가 마치 장구 모양으로 생기어 이름한 곳으로 남향 한강을 바라보는 경관이 좋은 높은 지역으로서 高山洞으로도 호칭	20
		弓 洞	궁 말	이 마을 형체가 마치 활같이 생긴 모양으로써 이름하였으며 구봉(송익필) 선생이 성장한 곳으로 뒤 심학산 남맥 별판 한강변에 우뚝 솟은 봉우리는 활록 끝부분이 마치 거북이 형체. 현 고양시 송포면 구산4리 이곳에서 당을 건립, 수많은 유능한 학자를 배출 호를 구봉으로 하였다. 또한 궁궐같은 큰 집이 있었다 하여 宮村洞이라고도 호칭	36
		塔谷洞	탑 골	옛날 이 골짜기 앞에 탑을 건립하여 유래된 마을	13
		帥獐洞	수노루	이 지역은 나무가 울창, 수시로 큰 노루들이 몰려와 소란을 일으켜 이름한 마을	1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b>西 牌 里</b> 이 마을은 심학산 북단 옛날 심학현이 있을 때 교하군을 경계로 하는 표시, 말뚝이 서쪽 이 지역에 설치되었다 하여 이름한 곳		石串洞	돌곳이	이 마을 주위로 크고 작은 돌이 논밭에 많이 박혀 있어 이름하였으며 장명산 장사와 심학산 장사가 들팔매질을 하며 싸움하였는데 심학산 장사는 모자만 떨어뜨리고 장명산 장사는 이곳에 돌이 꽃히게 되자 시난고난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다하여 유래	10
		尋鶴津洞	심 학 나 루	이 마을은 심학산하 한강변에 있는 지역으로 서울, 인천, 김포, 강화, 문산 등지로 왕래하는 사람을 건네주는 나루가 있어 유래	17
<b>文 發 里</b> 이 마을은 방촌선생 예장시 문종대왕의 교시에 힘입어 선비들이 문학에 힘써 이름을 떨치자 이에 호칭된 곳		珍 洞	진 골	이 마을은 장명산 서맥 내령 불끈 솟은 비룡봉하 아늑한 남향으로 감싸여 있는 부자마을로써 보배와 같은 곳이라 하여 호칭	16
		書堂洞	서당말	이 곳에는 구한말 판서 민영달이 낙향 이곳에 서당을 창건 이 근동에 많은 선비들이 모여 글을 배우게 되었다 하여 유래한 마을로 가운데 마을로도 호칭	32
		陽智洞	양지말	이 지역은 한강하류 강가에 위치한 곳으로 지혜를 널리 베풀어 이 마을을 빛내 고자 하여 이름 지은 것이며 하촌말로도 호칭	30
<b>新 村 里</b> 이 마을은 한강 하류와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 강변을 따라 길게 분포된 마을 사람들은 우리도 새로운 굳은 각오로 주경야독 열심히 살아 출세하자는 뜻에		悉發洞	민발이	이 마을은 문발리 넘어 마을로서 마음을 가다듬어 열심히 주경야독으로 이 부락을 빛내보자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곳	16
		谷內洞	골 내	이 마을은 뒷산이 둘러싸인 서향 한강변에 깊숙한 골짜기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호칭	12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서 이름지어진 곳		泉 洞	샘 말	이 마을 뒷산은 장명산 서맥 내령으로 북맥을 이은 최단 봉우리로 내려와 서맥 내령산하 맑은 물이 솟아 나온 물맛이 좋아 호칭	10
		楊美洞	버들미	이 마을 앞 강변에 양버들나무가 많이 있어 여름철 그늘과 함께 아름답게 칭칭 늘어져 있어 이름 지은 곳	10
		妓 三 水 洞	기 삼 물 골	이 지역은 한강, 임진강, 휴율강이 합류 서해바다로 흐르는 삼도품이 서로 열싸 안고 반갑다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는 아름다운 묘기에 물결을 바라보게 되어 이름한 마을	10
		礮凸洞	양철이	이 지역은 서울, 강화, 김포, 문산 등지를 오고 가는 사람들과 상선이 자주 왕래하던 반석 나루터로서 50명이 앉을 수 있는 반석이 있다. 강변따라 삐죽삐죽 나온 기암 삼도품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으로서 이름한 곳	12
松 村 里 이 마을 주위 산에 송림이 우거져 이름하였으며 또한 삼도품이 술렁이는 경관과 더불어 강바람에 물결과 같이 속삭여 유래된 지역		麗水洞	여수골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깨끗하며 맑고 아름다워 이름한 곳	15
		斗呂洞	두여골	이 지역은 반석나루가 있는 강변 상선들이 묵으며 놀고 다니던 곳으로 돈이 많이 왕래 풍요로운 마을로서 후덕하다는 뜻에서 호칭	10
		柿谷洞	감 골	이 마을 주위로 감나무를 많이 심어 대량의 감을 따서 시장에 팔아 생계에 도움을 받아 이름한 곳	13
		監司洞	감사골	이 마을에 옛날 기대승 정승이 경기감사로 있을 당시 이 지역에서 살았다 하여 유래된 곳	1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東城洞	동성골	이 지역 뒷산봉에 옛날 진을 친 성터가 있었으며 산봉에는 주위로 둘러싸인 모양 또한 성과같이 된 산하마을	20
		沼 羅 地 洞	소라지	이 마을 앞으로 휴율강이 굽이쳐 흘러 큰 웅덩이 연못이 있어 이름 지어진 곳	16
		新倉洞	새창이	이 마을 반석나루에서 푼 배의 짐을 일시 보관하기 위한 새 창고가 있었다 하여 호칭	18
		新基洞	새터골	이 지역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이름지어진 곳	20
<b>煙 多 山 里</b> 이 산봉은 장명산 서맥 내령에서 북단에 우뚝 솟은 휴율강변 벌판에 위치, 삼도품에서 불어오는 파도와 더불어 일상 해일로 말미암아 안개가 자욱히 덮여있는 산주위 마을로서 유래된 곳	1	牟 蓮 帶 洞	모연대	이 지역 후산 내령이 길게 뻗힌 내령기슭에 분포된 남향마을로서 집집마다 아름다운 가지각색의 큰 목련을 울타리에 심어 길게 띠를 두른 형상으로 이름지은 곳	54
		石橋洞	돌다리	이 마을은 모연대로 건너다니는 여울에 돌다리를 놓아 이름된 후 유래된 마을	20
		連 壇 梅 洞	연단매	이 곳은 부자마을로서 큰 기와집들이 즐비하게 있어 집울타리 토담을 쌓고 아름다운 매화나무를 빙둘러 심어 유래된 지역	30
		船泊洞	선박골	이 마을 앞 휴율강이 흘러 상선이 오고 가고 하는 부두로써 고기잡이 배들과 함께 정착 체류하였던 곳으로 이름한 곳	15
		2	巨文洞	거문이	이 마을 선비들이 방촌선생 예장시 문종대왕 교시에 힘입어 우리 동리 선비들도 문장을 크게 넓혀 출세 해 보자는 뜻에서 유래된 곳
		芳華洞	방화리	이 마을 주민들이 집집마다 아름다운 각종 꽃나무를 화려하게 가꾸어 향기에 도취되어 이름한 지역	13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b>菩 道 里</b> 이 마을은 방촌선생 예장당시 문중대왕 교시에 힘입어 이마을 선비들은 문학에 전념, 우선 내가 먼저 정도를 받아 널리 이름을 떨치자 하여 유래된 지역	1	大藩洞	대 울	이 지역은 장면산 서맥 기슭에 야산이 사면으로 둘러싸인 마을로 큰 울타리가 되었다 하여 유래된 곳	10
		長命洞	장명골	이 장명산에는 옛날부터 구절초가 전 산야에 번식 각지에서 매년 9월 9일날이 되면 이 장수의 약초를 뜯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루어 호칭	26
		溪內洞	개안골	이 마을 앞 유유히 흐르는 휴율강이 있어 시내 개울안 동리라 하여 붙여진 곳	10
		灰釜洞	횃가마울	이 지역 장명산은 석회석으로 형성된 명산이나 일제하에 석회광산으로 지정 수개의 횃가마가 있어 붙여진 곳	36
		臟 洞	오장골	이 부락은 인체의 오장육부와 같은 요지로서 뒷산이 둘러싸인 아늑한 동향 인심 좋은 후덕한 마을로서 이름 지은 곳	10
		堂峴洞	당재	이 마을 뒷산 고갯길 옆 옛날 경관이 아름다운 이곳에 서당을 설치 인근 유림들이 모여 학업을 갈고 닦아 많은 선비들이 등과하였다 하여 유래된 곳	41
	2	山踰洞	피너미	이 마을 당하동에서 장명산 서맥 앞산 내령에 산을 타고 넘어간다 하여 이름지은 곳이며 梅山洞으로도 유래	11
		堂下洞	당아래	이 마을은 인근 유림들이 주경야독으로 학문을 갈고 닦아온 서당이 있는 아래 마을이라 하여 호칭	15
		坊溪洞	막은개	이 마을 앞으로 시내물이 굽이쳐 흘러 홍수시 마다 가옥이 침수 물난리를 겪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락 앞에 제방을 둘러 싸게 되어 호칭되었으며 旁村洞으로도 유래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陵街 津洞	능거리 나루	이 지역은 옛날 탄현면 갈현리 장릉으로 가는 길목 휴율강이 흐르는 내를 건너다니는 나루로서 이름 지어진 곳	10
<b>多栗里</b> 이 마을 주위 전체 뒷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어 가을이 되면 아람이 떨어져 장관을 이루었다 하여 유래된 지역	1	靑石洞	청석골	이 마을 뒷산에 파란돌이 나와 이름한 곳으로 옛날 청석면이 소재하고 있던 지역	25
		蒼栗洞	합밤이	이 마을은 옛날 청석면 소재지 이웃마을로서 집집마다 여러 종류의 꽃나무들을 가꾸어 꽃집에 나오는 향기가 아름다웠으며 따라 밤꽃이 필 때 향내가 더욱 신기하여 유래	36
		蓴池洞	순못골	이 마을은 증중 당시 초당 경서가 대사간으로 있을 당시 이곳에 정착 정원앞에 연못을 파놓았으나 연못 안에 순나무가 자연 발생되어 호칭	20
	2	禍殺洞	화살이	이 지역에서 장사가 탄생하자 겨드랑 밑에 날개를 잘라 죽으니 별판 건너 산에서 용마가 나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따라 죽으니 동리 사람들은 이곳을 말을 이라 호칭하고 있다 함	11
		樓谷洞	다락골	이 마을에는 옛날 뒷산에 누각이 있어 선비들이 늘 이곳에 모여 공부를 하였다 하여 호칭	30
		長者洞	장자골	이 마을은 장명산 서남쪽 기슭에 큰 부자가 살고 있어 유래된 곳으로서 지금도 이 지역에 살던 터에 떡던 우물이 있으며 작은 남월로도 호칭	12
계	16	34	121		3,115

여

백

## 조리면(條里面)의 내역

〈조리면 봉일천리 188-6〉 TEL:947-4302

1896년 이전은 문산읍과 동일하다.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조리곡면을 조리동면(條里洞面)으로 10개리였으나 1924년 일제 강점기에 6개리(죽원, 봉일천, 뇌조, 오산, 장곡, 등원리)로 대대적 통합하였는데 개편 당시 지석, 아동, 고양, 사리대면의 각 일부로 편제되었으며, 1989년 군조례 1251호로 교하면 상지석리 일부를 편입 능안리로 개칭하였다.

이 지역은 옛날 條里面으로서 명봉산 서북간 내령으로 주위 별관 가운데 우뚝 솟은 최단봉 아름다운 경관으로 보시산(공릉산) 정상에서 사면으로 뻗은 수십개에 꼬챙이 같이 죽죽 뻗은 내령이 즐기따라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되었다 하여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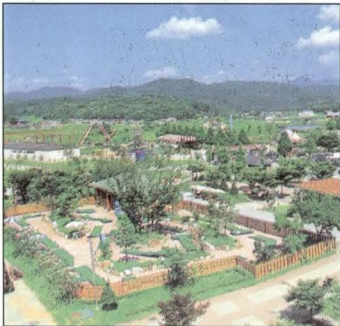


조리면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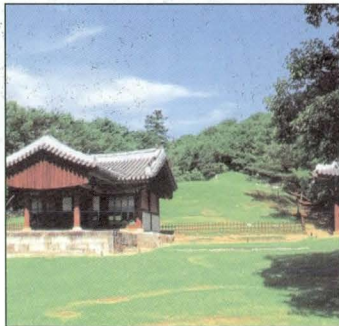
# 조 리 면



시가지 전경



공릉국민유원지



공 · 숲 · 영능



이회선생신도비

# 조 리 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b>竹 院 里</b> 이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를 심어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또한 남쪽에서 대나무를 사다가 마당에 집모양으로 돌려 세워 놓고 죽세공품을 만들어 팔았다 하여 유래	1	滿船洞	만선골	이 마을은 용문산 내령 최북단 별판 가운데 우뚝 솟은 야산형체는 마치 물건을 가득히 실은 배의 짐을 내리는 모양으로서 이름난 곳	110
		竹細洞	죽세말	이 부락은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신조로서 대나무로 소쿠리, 바구니, 갈퀴 등을 만들어 팔아왔으며 짚신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하여 이름난 곳	78
	2	船院洞	선원말	이 지역은 배의 형국으로 되어 있으며 큰집 울타리 모양으로 형성 용마루 등을 사이에 두고 동서양편에 마을이 형성 배집같다 하여 유래된 부락	68
		惠施洞	혜시골	이 마을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인하여 화합으로 은혜를 널리 베풀고자 하여 이름난 마을	40
3	岩峴洞	바위재	이 마을 뒷산 능선과 고개에 바위가 많이 박혀 있어 이름지어진 부락	76	
<b>奉 日 川 里</b> 이 지역은 고양시 벽제 별판으로 흐르는 보신천과 공릉에서 내려오는 보시천 개울물과 합류 매년 홍수때에는 이 근방이 물바다를 이루어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게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아무쪼록 적게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축원 청정한 하늘에 해가 뜨게 하여 달라고 주민들이 애원하	1	奉川洞	봉천말	이 마을은 고양군 보신천에서 내려오는 개울가 홍수때면 이 마을의 일상 물난리를 치르게 되어 개울둑 제방보수 등 각별히 유념하자 하여 유래	314
		恭 陵 場 洞	공릉장터	이 마을은 옛날 공릉이 생긴 후 우시장을 비롯 일용잡화시장이 변화하게 이루어졌던 사통오달 교통이 편리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 7일 장터로 유명한 곳	1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였다 하여 이름지어진 곳		頌碑洞	송비말	이 마을 어귀 현 면사무소 앞 옛날 공릉 장이 변화할 때 치기때와 불랑배들이 한 양서 몰려와 시장에 온 사람들을 괴롭히 자 구한말 태종백 민영달이가 이를 제지 주민들이 그의 은공을 널리 찬양 비각을 세워 길이 빛내게 되어 유래됨	80
		統 一 路 洞	통 일 로 말	이 마을은 의주로 가는 통일로변 지역으 로서 하루 속히 통일되기를 염원, 추억을 기리기 위해 이름한 곳이며 外山洞으로 도 호칭	40
	2	富谷洞	부자골	이 마을 위 골짜기 옛날 부자들이 살고 있었다 하여 이름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곳 우물은 신기하게 물맛이 좋으며 일상 철철넘쳐 흘러 마을사람들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86
		鞍山洞	안산말	이 마을 뒷산 형태가 말안장과 같다 하 여 이름하였으며 뒷산정에 두류봉이 있 음	200
	3	殉碑洞	순비골	이 마을 앞 통일로 변에 3.1운동 당시 애 국지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왜적들 과 싸우다 순직한 넋을 길이 추모하고자 건립한 비가 있어 이름한 지역	50
		沼谷洞	소 골	이 마을 골짜기 옛날 용이 나왔다는 응 덩이 못이 있어 유래된 지역으로서 송림 이 울창한 지역	121
	4	箕台洞	삼 태 기 말	이 마을 뒷산 내령이 마치 삼태기 같은 수개의 골짜기를 이루어 이름한 곳으로 서 산림이 울창한 지역	148
		松岩洞	솔 바 위 골	이곳 뒤 보시산 또는 능산에는 송림이 울창한 바위가 분포되어 이름한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	1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普施洞	보시골	이 마을 공·순·영능 골짜기에서 흐르는 냇물 보시천은 청춘 나이로서 사라진 왕자와 왕비의 영혼을 달래며 길이 추모하는데 널리 은혜를 베풀자는 뜻에서 이름한 마을	180	
		5	陵街洞	능거리	이 마을은 공·순·영릉으로 들어가는 길거리에 분포되어 이름 지어진 지역	224
			婆羅洞	팔라골	이 곳은 옛날 공릉·영릉을 모시자 영의정 한명회는 청춘나이로서 사라진 딸을 측은하게 여겨 이곳에 암자를 건립 婆羅僧으로 하여금 영혼을 달래며 축원을 발원케 하였으며 또한 성균관 학사 8명이 수시 내려와 공부를 하였다 하여 유래, 八學谷라고도 호칭	40
<b>弩造里</b> 1914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너곡동에弩자와 조산동에造자를 따서 이름한 지역	1	造山洞	조산말	이 마을 뒷산은 뒷밭같은 모양인 뒤박산으로서 홍수가 나면 흙이 동리부락으로 내려와 가옥과 전장에 피해를 입혀 수시로 산 주위로 내려온 흙을 긁어 옮기게 되어 이름 지은 부락	63	
		申檜洞	곶창말	이 마을은 옛날 국난시 화살과 창을 만드는 군납창고가 있던 지역이며 또한 싸리나무가 무성 싸리곶창이를 만들어 팔기도 하며 뒷산 주위 내령이 우렁이 모양의 형체마을로서 우렁굴로도 호칭	20	
		實枝美洞	실지미	이 마을 뒷산에는 옛날 머루, 다래, 뽕나무, 앵두, 딸기 등 각색 열매들이 가지마다 매달려 있는 것이 아름다워 이름한 곳	15	
		新洞	새 말	이 마을은 근년에 새로 생긴 부락으로서 이름 지어진 곳	1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仙遊洞	선유울	이 마을 뒷산의 덕암산은 뒷박같이 생긴 봉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상봉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는 경관 또한 화려하여 옛날 선인들이 놀았다 하여 이름 한 곳	12
		造文洞	조문이	이 마을 사람들은 옛날 선유동에 연원 부원군 이광정이 살고 있어 조석으로 문안을 두드리며 이분의 교훈은 받아 학문에 전념하였다 하여 朝間洞으로 유래하며 선비들이 모여 작시로서 불렀다 하여 호칭	26
		弩谷洞	쇠뇌골	이 마을 뒤 산야 여러 곳에다가 양쪽 나무가지들 활모양으로 휘어잡아 덧을 만들어 노루, 토끼, 산돼지 등을 잡아 먹었다 하여 이름한 곳	28
		田池美洞	전지마	이 마을 주위에 전나무들을 많이 심어 사시사철 청청한 기세와 겨울철 눈이 내려 가지마다 흰꽃을 자아내는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름한 곳이며 발가운데 연못의 물맛이 좋다 하여 유래	15
梧 山 里 이 마을 뒷산 전역에 걸쳐 오리나무를 심어 울창하게 많이 있어 이름한 곳	1	梧里洞	오리골	이 마을 주위로 오동나무를 집집마다 심어 늦은 가을 열매가 감실감실 춤을 추며 매달린 모양이 아름다워 이름한 곳	64
		鷹峯洞	매봉재	이곳 지역 뒤 산봉은 마치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며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름한 산하에 분포된 남향 아늑한 마을	35
		望谷洞	망 골	이 지역은 발산 당현봉하 북향마을로 겨울철 너무나 쓸쓸하여 건너 양지쪽을 늘 바라본다 하여 이름한 곳	10
		前進洞	전진말	이 마을은 군인 관사 마을로 전쟁을 비롯한 문화창달의 전진만을 목표로 한다 하여 이름한 곳	8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鶴洞	황새말	이 마을 뒤 송장산 아래 분포된 곳으로 주위 산야에 나무가 울창하여 황새들이 깃드려 있어 이름 지은 부락	36
		永堂洞	영달말	옛날 이 마을 큰 부자집에 영생당이란 이름을 붙인 사랑방이 있어 늘 선비들이 모여 글을 읽고 하였다 하여 이름 지은 곳이며 연못이 있다 하여 蓮塘洞으로도 호칭	29
		鳥谷洞	새 골	이 마을 후산에 나무가 울창하여 많은 새들이 날아와 놀던 곳으로 유래	30
		俗隱寺洞	속 은 절 이	옛날 이 마을 골짜기에 여승이 암자를 짓고 속은사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다 하여 이름한 곳	11
<b>獐谷里</b> 이 마을 뒤 계명산 내령 노루모양의 봉우리 아래 골짜기에 분포된 부락	1	基谷洞	터 골	이 마을에는 옛날 성종대왕 8자 익양군이 이곳에서 살며 능을 보살피 오던 터가 있어 유래된 곳	67
		內洞	안 골	이 마을은 능산을 바라보는 골짜기 안쪽에 분포되어 있어 이름한 곳	11
		隱谷洞	은 골	이 마을은 터골 위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집단 부락으로서 숨어 있는 곳이라 하여 유래	12
	2	獐山洞	노루피	이곳 지역은 노루바위봉이 있는 산하마을로서 이름 지어진 곳	95
	3	碇舞洞	여무시	이 지역은 계명산 중턱 용미리 고개길 마을로 옛날 이곳 수목이 울창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놀던 장소로 이름 지은 부락	131
<b>登院里</b> 이 마을 주위로 능선이 둘러싸여 있어 이 마을 사람들은 늘 이 능선에	1	杏樂洞	행락말	이 마을 뒷산 이조참판 辛泰東 묘하 아담한 이곳 행락 정자를 건립 자주 선비들이 모여 시화로 즐기었다 하여 호칭	3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올라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달밤에 모여 고담과 함께 사생활을 논의하기도 하며 능선을 걸어다니는 것이 마치 큰 집 용마루를 올라다니는 기분이라 하여 이름한 곳		書堂洞	서당골	이 마을 뒷산 언덕에 서당이 있어 늘 선비들이 공부를 하였다 하여 유래	70
		祠堂洞	사당말	이 마을에 전주이씨 종가집에 조상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어 이름한 곳	25
		冠岩洞	갓바위	이 마을 뒷산에 벼슬하던 사람이 쓰고 다니던 갓모양의 큰 바위가 있어 이름한 곳	26
	2	洛隅洞	낙모리	이 마을은 오산리와 장곡리에서 내려오는 여울이 합류 고산천으로 이은 개울결으로 길게 분포되어 이름한 곳	135
		船峴洞	선고개	옛날 이 고개 밑에 작은 배들을 정박시켰다는 곳으로 이름한 마을	30
		雇山洞	고산골	이 지역 뒷산에 비둘기와 삿갓새가 많이 있어 사랑을 속삭이는 산으로서 鷓山으로도 호칭	12
		玟拔洞	민밭이	이 마을 뒷산에서 옛날 옥들을 빼냈다 하여 이름 지은 곳	16
	계 6	17	47		3,289

여

백

## 광탄면(廣灘面)의 내역

〈광탄면 신산리 134-1〉 TEL:942-2012

1896년 이전은 문산읍과 동일하다.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16개리였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양주 백석면 마장리의 일부가 편입되어 7개리(용미, 분수, 신산, 창만, 마장, 발랑, 방축리)로 개편되었다.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양주군 영장리와 기산리가 편입후 군조례 제801호로 영장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7년 대통령령 제12007호로 기산1리가 양주 백석면으로 이관되었다.

이 지역은 첩첩산중 기산리를 거쳐 마장리 골짜기로 흐르는 냇물이 창만리와 발랑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여울물과 신산리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여울물과 합류 임진강으로 흘러내리는 어마어마한 넓은 여울이라하여 유래된 지역이다.



광탄면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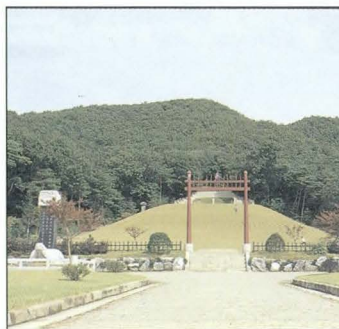
# 광 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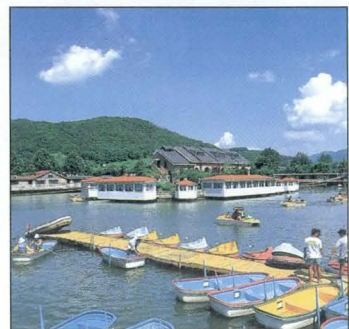
시가지 전경



용미리석불



윤관장군묘



유일레저

# 광 탄 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龍 尾 里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당시 구룡동 에 「龍」자와 호미리의 「尾」자를 합하여 이름 지어진 호칭	1	虎尾洞	호미골	이 지역 고령산 서북맥 내령에 장지산 (미륵산)은 용머리와 분수리 사이로 경 계하여 벌판 가운데로 뭉친 이 산 형체 는 마치 대호가 앉아 있는 모양에 꼬리 부분이라 하여 호칭	66
	2	彌勤洞	미륵골	이 마을 뒤 장지산 끝머리 중턱의 미륵 불(입상석불)이 있는 아래 마을로서 이 름지은 곳	18
		石坊洞	돌 방 구 지	이 마을 앞으로 개울물이 굽이쳐 흘러 매년 홍수때에는 주민들이 막심한 피해 를 당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돌로 제 방을 쌓아 놓았다 하여 유래	50
		瓦家洞	기와골	이 마을에는 옛날 큰 부자가 있어 고래 당 같은 화려한 기와집이 있어 이름지은 곳	15
		玉 薩 山 洞	옥살피	이 마을 양편 산 내령 끝머리에 자그마 한 두꺼비 봉우리는 건너편에 있는 미륵 불을 바라보며 살피고 있어 옥같이 여기 는 보살이라 하여 호칭	30
	3	細柳洞	잔버들	이 마을 도로 옆으로 흐르는 개울가에 수양버들을 많이 심어 이름지은 곳	72
		洋凸洞	양철이	이 마을 앞에 어마어마한 많은 샘물이 사시사철 우물위로 솟구쳐 올라와 이름 지은 곳	20
		泉 洞	샘 말	이 지역은 해음령 고개로 올라가는 길가 의 분포된 마을로 앵무봉 장산하 기슭에 어디든지 우물을 파면 맑은 샘물이 많이 나와 유래	2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4	九龍洞	구룡골	이 마을 뒤산에서 사면으로 갈라져 내려오는 아홉개 산맥은 마치 용이 꿈틀대며 서리고 있는 형상 또는 오르내리던 형체로서 이름한 곳	22
		陳 竿 地 洞	진 대 박 이	이 지역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해음령에서 왜군과 격전이후 이여백, 이여매를 죽인 이곳에 군사가 진을 치고 있던 자리라 하여 호칭하며 지금도 기러기 모양의 봉의 진대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음	95
		鷄鳴洞	닭운이	영조대왕 사친 숙빈최씨가 서거 소령원에 장례를 모시러 가던 중 이곳에 이르니 많은 닭들이 슬피울어 산골짜기가 진동하였다 하여 이름지은 곳	13
汾 水 里 이 지역은 장지산 하단 낙막에서 건너편 봉화봉으로 이은 언덕지점 양산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용미리와 신산리쪽 개울 남북으로 나누어 흐른다하여 이름하였으며 옛날 이곳 한양서 의주로 가는 국도변 주막거리(숙소)인 분수원이 있었다 함	1	麗忠洞	여충골	이 지역은 여조충신 윤관장군의 영당과 묘가 있어 이름지은 마을	15
		佛堂洞	불당골	이 마을 뒤산 골짜기에 옛날 사찰이 있었다 하여 이름지은 곳	83
		槐木洞	느 티 나무골	이 마을 앞 오래묵은 느티나무가 있어 주민들이 여름철 이 나무 그늘에서 모여 문학을 연구 시조를 읊으며 놀았다 하여 이름지은 곳	116
	2	後村洞	뒤 말	이 마을은 별 뒤 골짜기 있는 지역으로서 이름지은 곳	30
		泉井洞	샘 말	이 지역뒤 박달산 남맥 내령으로 뻗은 산맥 평풍같이 둘러싸인 아래 마을에 맑은 샘이 많이 나와 이름 한 곳	25
		店 洞	점 말	이 지역에는 옛날 여러가지 짚그릇을 만들어 팔아왔다 하여 이름한 곳	14
	3	內 洞	안 골	이 마을은 깊숙한 골짜기 안에 집단 부락으로서 이름지어진 곳	3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新 山 里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당시 신탁만 리의 「新」자와 화산의 「山」자를 따서 이름지 어진 호칭	1	柴木洞	시목골	이 마을 뒤산에 나무들이 울창 겨울철에 주민들이 이곳에서 땀나무를 하였다 하 여 호칭	36
		紫谷洞	자 곡	이 마을 산야에 걸쳐 붉은 진흙이 분포 한 지역으로서 유래된 곳	128
		東 巨 里 洞	동거리	이 마을 서편 개울 건너 왕수물이 있는 국도에서 동쪽에 있는 이곳은 분수리와 시목골, 만장이, 신탄막을 통하는 삼거리 너무나 넓은 지역이라 하여 호칭	180
	2	市場洞	시장동	이 마을은 근년에 새로생긴 시장거리로 서 이름한 지역	160
		兩水洞	양수골	이 마을은 분수리와 시목골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되어 이름한 곳	140
		藩山洞	울산말	이 마을은 만장산 서쪽 기슭을 둘러 길 게 분포된 지역으로 이름한 곳	80
		清溪洞	청계말	이 마을은 양수물이 흐르는 개울옆에 길 게 분포된 지역으로 이름한 곳	64
		王 水 井 洞	왕 수 물 골	이 마을은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이 의 주로 파천할 때 이곳 우물에서 물을 잡 수시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지금도 주 민들은 이 물을 식수로 이용한다고 함	190
		鏡峯洞	경봉골	마을 뒤산 봉우리가 왕수물과 흘러 내리 는 물에 거울같이 비친다하여 유래된 것 이며 이 산하 기슭 길게 개울섬으로 분 포된 마을	5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3	新 炭 幕 洞	신탄막	이 마을은 옛날 한양서 의주로 가는 국도변 주막거리로 일찌기 참나무 숲을 구어 사용하던 중 임진왜란 당시 선조대왕이 의주로 파천하는 도중 1592년 4월 29일 이 지역을 지날 때 억수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할 수 없이 어가를 멈추고 요기를 하기로 준비를 서두르는데 장작이 젖어 타지 않아 할 수 없이 아껴쓰던 참나무 숲을 지피 이글이글한 불에 수행하던 관원들이 옷을 말리며 몸을 녹였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왕께서 이 숲(炭)을 처음 보는 새로운 탄(木炭)이라 하여 유래	138
	4	寺谷洞	절 골	이 지역에 옛날 암자절이 있어 이름지어진 마을	10
		內 花 山 洞	내화산	이 마을 뒤산 전역에 거처 아름다운 많은 꽃들이 울긋불긋 피어 이름한 마을	21
		下 洞	아래말	이 지역 뒤 화산 아래 기슭에 있는 아늑한 집단마을로서 이름한 곳	11
	5	搖岩洞	흔 들 바 위	이 마을은 내화산에서 고개너머로 내려가는 길목산에 흔들바위가 있었다 하여 이름한 곳	14
		外 花 山 洞	외화산	이 지역은 화산 동북부 끝머리로 둘러싸인 아늑한 골짜기 필봉을 바라보는 서향마을로서 화산밭에 있다 하여 이름한 곳	25
<b>基 山 里</b> 이 지역은 개명산 앵무봉 내령 양주 백석면을 경계로 하는 소새고개를 기점으로 서북맥 수십갈래로 이은 준령은	1	基谷洞	터 골	이 마을은 개명산 북맥 기산아래 높은 골짜기 저수지를 만들어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산기슭 주위 분포된 곳으로서 유래	3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감악산하 임진강을 따라 십악산에 이르기까지 분포된 산맥이라 하여 이름한 곳		石谷洞	돌고래	이 지역뒤 월봉산하 중턱 돌가닥 다리가 산야를 막론 마을주위에 분포되어 이름한 곳	27
		內古靈洞	안고령	이 지역은 개봉산 내령 고령산 중턱 안골짜기 마을로서 옛날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이 많이 전사한 지역으로 영산이라 하여 이름한 곳	11
	2	狎山洞	총산골	이 마을 주위 앞뒤산이 첩첩산중 두메산골로 나무가 울창 늑대(삼살개)들이 많이 있는 산이라 하여 이름한 곳	33
		雨裝洞	우장이	이 마을은 옛날 끄랑(우장 만드는 풀) 풀이 길길이 우거져 이름한 지역으로서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와서 풀을 비어 비올 때 쓰는 우장을 만들어 입었다 하여 유래	16
靈場里 이 지역 보광사 주위 일대에 거쳐 임진왜란 당시 서산대사가 이끌었던 승병 수백명이 목숨을 잃어 영혼들이 원한에 사무쳐 해매고 있는 곳이라 하여 유래되었으며 그후 영조 대왕 사친 숙빈 최씨가 이곳에 안장과 동시 이절에 봉안후 고령산으로 호칭	1	陵洞	능 말	이 마을 뒤골짜기 영조대왕 사친 숙빈 최씨 묘 소령원과 진종대왕 사친 정빈이씨 묘, 유길원 또한 七宮을 모신 지역 아래 있어 이름한 곳	25
		松亭洞	송정말	이 마을은 기산리와 대고령에서 흐르는 개울물이 합류되어 지역 달밤마을 주위로 흐르는 냇물이 아름답고 환하게 거울같이 비친다 하여 유래	30
	2	大古靈洞	대고령	협준한 이 지역 앵무봉하 옛날 임진왜란 당시 많은 승병들이 죽어 靈山으로 호칭 되었으며 숙빈최씨 소령원에 국장과 동시 보광사에 영혼을 안치 후 古靈山으로 개칭 특히 靈山中 이곳에 수많은 영혼이 묻혔다 하여 大古靈山으로 이름한 곳	1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普光洞	보광골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이 지역 절은 신라 진성여왕 8년에 도선국사가 창건당시 전국 6대 사찰로서 국난중 어려운 역경속에 이어온 유명한 사찰 보광사 아래 마을로서 이름한 곳	30
<b>發 郎 里</b> 이 지역은 1899년 구한말 행정구역 변경당시 명량하고 아름다운 고장으로 만들자는 뜻에서 앞으로는 열심히 학문에 전념 벼슬길에 오르는데 분발하자는 마을 선비들의 굳은 의지와 신념에 따라 이름한 곳	1	新基洞	새 터	이 마을은 금병산 동맥 내령하 새로 터를 닦아 집을 지었다 하여 유래된 곳	13
		鉢囊洞	바랑골	이 마을 뒤산 골짜기 옛날 큰절이 있어 이곳으로 여러 중들이 바랑망태를 걸머지고 아침저녁으로 왕래 거주하였다 하여 유래	18
		內谷洞	안 말	이 마을은 깊숙한 골짜기 안에 있는 집단부락으로서 유래된 곳	10
		粉內洞	분내골	이 마을 뒤산에 옛날 백토 가루분이 많이 나와 유래된 곳	15
	2	梧山洞	오 피	이 마을 주위 산야에 걸쳐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이름하였으며 오묘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五墓洞으로도 호칭	14
		細谷洞	세곡동	이 마을 주위 갈기갈기 찢어진 산골짜기가 많이 있어 이름하였으며 백경수 저수지가 있는 마을	12
		元基洞	원 터	이 마을은 양주군 연쪽으로 넘나드는 고개를 경계로 하는 이 지역 백경수 막바지 옛날 양주목사 원님이 파주목을 왕래할 때 이곳 터에서 쉬어 다니었다 하여 유래	10
	3	新村洞	새 말	이 마을은 근년에 새로 생긴 부락이라 하여 호칭	12
		土卵洞	토란이	이 마을 앞 벌판 가운데 자그마한 산봉이 우뚝 솟아 있는데 마치 흙으로 뭉친 계란같다 하여 유래된 곳	13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鋤基洞	보습터	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산맥 내령 끝 머리가 마치 보습같이 생기었다 하여 유래	15
<b>防 築 里</b> 이 지역은 우두산하 분포된 마을로서 이 앞으로 광탄천이 흘러 홍수 때에는 전답이 매몰 등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어 개울 옆으로 뚝을 구축하여 수해를 막았다하여 유래된 곳	1	檢田洞	검전이	이 마을 앞으로 맑고 깨끗한 개울물이 흐르는 이곳에 웅덩이가 있어 인근 주민들이 늘 모여들어 고기를 잡으며 목욕을 하느라고 개울 옆에 있는 전지를 마구 짓밟아 곡식을 망쳐 놓아 밭둑옆으로 말장과 쉼 대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하여 이름한 곳	70
		野村洞	벌 말	이 마을은 근년에 사람들이 몰려와 개울 옆 들판에 집을 짓고 살게되어 이름지은 곳	75
	2	大村洞	큰 말	이 지역은 옛날 만가대로 이름하였던 곳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 유래된 마을	51
		祭廳洞	제청골	이 마을에는 옛날 이곳에 제청당을 설치 마을 주민들의 안녕질서를 발원하던 지역으로서 유래	15
		砂川洞	모래내	이 지역은 마장리와 발랑리 골짜기에서 합류되어 흐르는 많은 물이 모래와 함께 내려와 이름한 곳	16
3	蹄坪洞	굽들리	이 마을뒤 우두산하 남맥 내령 형체가 마치 소발굽이 편편한 지역에 놓여있는 것 같다하여 유래된 곳	29	
<b>倉 滿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변경당시 사창이의 「倉」자와 두만이의 「滿」자를 따서 이름한 곳	1	斗滿洞	두만이	이 마을은 이십팔숙중 「斗」자와 십이지신에 「滿」자를 따서 풍요로운 후덕한 부락이라는 뜻에서 이름하였으며 별지 유래와 같음	76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新基洞	새터말	황보인 정승 생장지이며 부친 지증추부사(皇甫淋)이 이곳에 정착하여 아름다운 향토로 새로운 터전을 만들겠다는 뜻에서 이름한 곳	35
		梧木洞	오목말	이 마을앞 옛날 오래 묵은 큰 오리나무가 무성주민들이 여름철 그늘 밑에서 쉬며 고담을 즐기었다 하여 이름한 곳	25
	3	松蘿洞	소라울	이 마을을 둘러싸은 뒤산에는 송림이 울창 삼라만상의 뜻을 담아 이름한 곳	54
		滿丈洞	만쟁이	이 지역 후산 만장산의 내령은 지혜를 만인에게 베푼다는 형국의 뜻으로 이름하였으며 그후 학문에 진리를 알며 참다운 어른 명인이 나왔다 하여 유래된 산하 아름다운 마을	15
	4	社倉洞	사창이	이 마을에는 옛날 나라에서 환곡을 수납 저장하였던 창고가 있어 유래된 곳	21
		廣谷洞	넓은골	이 지역 뒤 산하 골짜기 넓은 평야지대로 형성되어 이름지어진 곳	11
	5	都馬山洞	도마뱀	이 지역은 금병산 남맥 우뚝 솟은 산내령은 마치 도원수(장수)가 말을 타고 물을 먹이는 갈마음수형이라 하여 이름지은 아래마을	35
馬場里 이 지역은 연산군 10년 이 지역을 혁파 유행지로 설치 기마훈련장으로 이용하게 되어 유래된 곳	1	鷄山洞	닭 뵈	이 마을 뒤산 형국이 금계포탄형으로 되었다 하여 이름한 곳	14
		泐越洞	보월말	이 마을은 마장리에서 흐르는 광탄천 여울 닭뵈로 건너 다니기 위하여 옛날 들과 흙으로 보를 구축해 부락을 넘나들었다 하여 유래	30
	2	牛浪洞	우랑골	이 마을 후산 형체가 마치 소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양이라 하여 이름지은 곳	12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牛里洞	우리골	이 마을 뒤 산맥 들어싸인 형체가 마치 소가 놓고 먹는 외양간 같다고 하여 유래된 곳	26	
		3	泉井洞	샘우골	이 마을에는 맑은 샘물이 사시사철 우물에서 흘러나와 이름난 곳	
		影廟洞	영묘말	이 마을에는 공자화분을 모시고 있는 성사영묘와 성종대왕 4자 완원군 영묘가 있어 이름지어진 곳		
		馬藩洞	망울이	이 마을은 연산군 10년 이 지역을 혁파기마훈련장으로 있을때 이곳에 마구간이 있었다 하여 유래된 지역		
		薪谷洞	시 골	이 마을 뒤산에는 나무가 울창하여 겨울에 땀 나무들을 이곳에서 주민들이 하였다 하여 유래		
4	野光洞	야관동	이 마을은 첩첩산중 기곡리를 거쳐 영장리를 경계로한 이곳에 다다르며 마을앞 별판이 황활하게 이루어져 빛낸다 하여 유래			
계	9	31	76		3,080	

## 파평면(坡平面)의 내역

〈파평면 금파리 285-5〉 TEL:958-3317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18개리 였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적성군 서면에 식현, 도장리 각 일부를 편입 7개리(두포, 울곡, 이천, 마산, 금파, 늘노, 직천리)로 개편되었다.

이후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해 적성면 장파리를 편입하였고 1979년에는 울곡리에서 금파리로 면소재지를 옮겼다.

이 지역은 파평현 지역으로 임진강변 장파리와 금파리로 이어지는 편편한 언덕이 약3km가량 펼쳐져 있다하여 이름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청이 있던 늘노리 뒷산을 파평산이라 호칭하였다.



파평면사무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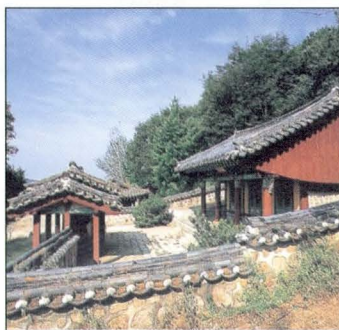
# 파 평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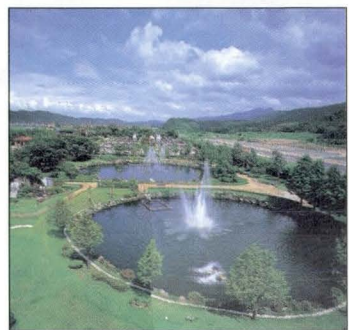
시가지 전경



화석정



파산서원



임진강폭포어장

# 파평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斗 浦 里 파평산 남맥 내령 골짜기 금곡리와 영평산 북맥 마산리로 흐르는 냇물이 합류 많은 물이 내려와 임진강으로 들어가는 어귀 포구로서 이름난 지역.	1	長潭洞	장담말	이 마을앞 냇물에 옛날 깊은 웅덩이 연못이 길게 형성되어 있어 이름지어진 곳.	110
		露積洞	노적말	이 마을 뒤산 봉 형체가 마치 노적더미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하여 이름난 곳.	15
	2	防鶴洞	방학골	이 마을 앞 개울을 낀 산하기슭에 편편한 뜰이 있어 수시 이곳을 찾는 학들이 춤을 추며 사랑을 속삭이며 놀고간다 하여 유래된 곳.	12
		栗花池洞	밤꼬지	이 지역 산야를 비롯 연못가에 밤나무를 많이 심어 여름철 밤나무꽃이 피면 벌, 나비가 몰려들어 장관을 이룬다하여 이름난 곳.	45
3	長浦洞	장 계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임진강변 길게 뻗힌 포구에 생육신 성담수가 건립한 몽구정에서 많은 선비들과 금주작시로서 여생을 보내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우계(성혼)선생 생장지로 소계라고도 호칭.	41	
栗 谷 里 이 지역은 덕수이씨가 정착 세거하여 오던중 이원수(울곡선생 부친)가 이곳 화석장에서 여러 선비들과 학문을 익히고 있었다. 연이나 하루는 울곡을 데리고 책을 보는 도중 노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입맛을 다시며 하는 말이 저야기(울곡)가 후환이 두렵다 하고 공손히 절을 하고 가는 지라 이	1	薪寺洞	섭절이	이 마을 후산 중턱에 옛날절이 있었는데 나무 우죽과 싸리로서 암자를 건립하였다 하여 이름난 곳.	43
	2	氷藏洞	빙장골	이 지역에서 옛날 겨울이 되면 주민들이 임진강에서 얼음을 깨어 이곳에 창고를 짓고 저장하던 곳이라 하여 유래.	23
		龜山洞	거북뿔	이 마을 가운데로 내려뻗어 뭉친 산 형태가 마치 거북이가 물을 먹는 모양이라 해서 이름지어진 곳.	10
3	花石洞	화석골	이 마을 뒤 산하 임진강이 흐르는 암벽 위 울곡선생의 5대조이신 이명신이 1443년에 이곳에 정자를 짓고 이숙함. 선생이 꽃같은 암석이란 뜻에서 화석정으로 이름난 뒤 유래.	41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원수는 이상하다는 의 구심에서 가는 노승을 쫓아가 다시 반문하며 연유를 물으니 밤나무 천주만 심으면 후환을 막으리라하여 밤나무를 집 후산에 심었으며 이 로 인하여 유래된 것.	4	鳥興洞	새 일	이 마을은 옛날 기계유씨가 정착세거한 지역으로 뒷산 우거진 숲에서 참새들이 모여 보금자리를 만들고 조석으로 지저 대며 우글거린다 하여 유래.	15
		龍飛洞	용비골	이곳 영평산 서맥 비룡봉 동맥 산하마을 로서 아담하고 화려한 지역으로서 유래.	18
<b>麻 山 里</b> 이 지역 산야에 걸쳐 삼베나무를 전주민이 심어 베틀로 옷을 짜서 입었으며 팔았다하여 이름지은 곳.	2	火堂洞	불당골	이 마을 앞 맑은 개울물이 흘러 경관이 아름다운 산기슭 암석위에 초당을 짓고 선비들이 공부를 하였으나 불에 타버렸 다 하여 이름한 곳.	34
		麻沙洞	마사울	이 마을 앞뜰 모래사장에 길쌈 베옷을 짜서 입던 삼밭이 있어 이름한 곳.	40
		新村洞	새 말	이 마을은 근년에 주민들이 몰려와 거주 하게 되자 새로 생긴 지역이라 하여 이 름한 곳.	26
		東嶺洞	동령골	이 지역은 금곡리로 넘나드는 동쪽고개 아래마을로서 이름지어진 곳.	15
	2	龍山洞	용산골	이 마을은 영평산 북맥 내령 마을을 둘 러싸은 산맥형체가 마치 용이 서리고 있 는 모양이라 하여 유래된 곳이며 옛날 영평현 읍지가 있던 지역.	50
<b>金 坡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당시 금강동 의 「金」字와 파현동의 「坡」字를 따서 이름한 곳.	1	金剛洞	금강골	이 마을 뒷산 전역에 걸쳐 금맥이 분포 되어 있다하여 이름한 곳으로 옛날 파평 윤씨 시조 태학사 윤신달이 살던 지역.	55
		鷹峯洞	매봉골	이 마을 뒤 산봉은 마치 새매가 벌판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형체라 하여 이름한 곳.	12
		祠堂洞	사당말	이 마을 뒷산 기슭에 저주이씨 담양군 영묘사당이 있어 이름지어진 곳	2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2	坡縣洞	파현골	이 지역은 옛날 파평현 읍터가 있던 곳으로서 유래된 곳.	66
		黔岩洞	검바위	이 지역 야산 동편 끝머리 검은 암석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름지어진 곳.	55
		草堂洞	초당골	이 마을 뒤산 초목이 울창한 숲속 늘노천이 흐르는 수로와 임진강을 바라보는 아담한 이곳에 옛날 초당이있어 선비들이 공부를 하였다 하여 유래.	20
<b>訥老里</b> 이 지역은 파평산 서맥 영평산 동북골짜기에서 흐르는 냇물이 늘노천과 이곳에서 합류, 개울바다에 큰돌이 묻쳐 있어 홍수시 특히 위에서 내려오는 잔돌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파파노인들이 얼버뜨려 말하는 연상을 자아낸다 하여 유래.		龍淵洞	용연말	이 지역은 파평윤씨 시조 윤신달이 이곳 용연에서 나왔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용연있는 위에 마을.	40
		石溪洞	돌 계	이 지역은 늘노천변 파평산과 영평산에서 내려오는 시내 개울에 큰 돌이 많이 있어 이름한 곳이며 价石洞으로도 호칭.	97
		書院洞	서원말	이 마을 늘노천 청송보 건너 청송, 휴암, 우계, 절효 선생 4위를 모신 파산서원과 오천, 창낭, 화담 선생을 모신 경현단이 있어 이름지어진 곳.	30
		於義洞	어의골	이 마을 뒤산 중턱 골짜기 사찰이 있어 절골(寺谷洞)로 유래하였으며 이곳에 옛날 관아가 있어 의리를 기반으로 잘 지켰다 하여 호칭한 곳.	80
<b>德泉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구역 변경당시 풍덕동에「德」字와 천천동의「泉」字를 따서 이름지어진 곳.		豐德洞	풍덕골	이 지역은 옛날부터 풍요로운 마을로 인심이 좋고 후덕한 마을로 이름이 나 있어 유래된 곳.	60
		市場洞	시장말	이 지역에 5일마다 돛되기 시장이 번창하던 곳으로서 이름지어진 곳.	95
		泉川洞	샘 내	이 마을은 응담리 골짜기에서 흐르는 냇가가 있는 곳으로서 지하모래와 돌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야지대 개울바다 여기 저기서 샘이 터져나와 이름한 곳.	8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高沙洞	고사골	이 마을앞 개울에 홍수만 지면 모래가 산더미 같이 쌓여 이름한 곳.	35
<b>長 坡 里</b> 이 지역은 금파리 파현 동에서 자장리를 거쳐 국사봉에 이르기까지 기나긴 언덕을 임진강변에 위치, 무려 4km나 되는 거리에 긴 능선이 형성되어 유래, 옛날 이곳에 시장이 있었다 하여 場坡里로도 호칭	1	如 飲 津 洞	여 음 나 루	이 지역 임진강옆 장단군 서포나루는 수심이 얕아 발을 벗고 건너다니던 나루터로 옛날 운신달이 송도 서울을 다닐 때 이곳에서 말에게 물을 먹이던 지역으로서 이름한 곳이며 여의진 또는 용산진으로도 호칭.	145
		赤峴洞	붉은재	이 마을 뒤 언덕으로 넘어가는 고개길 옆 지역에 붉은 흙이 분포되어 있어 이름한 곳.	88
		楊驛洞	양역골	이 지역 옛날 파평현이 있을 때 파발말과 군마를 사육하던 곳으로서 마을 주위로 산이 둘러 싸여 양버들이 많이 있었으며 역원이 있던 지역.	90
	2	長野洞	장 뜰	이 지역 임진강변 광활한 평야 길게 형성된 뜰로서 근년에 주민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로서 옛날 파평현이 있을 당시 시장이 있었던 곳.	85
		坡陽洞	파양골	이 지역에는 장마루 길게 능선 언덕을 따라 남향으로 분포된 마을로서 이름한 곳.	109
계	7	15	35		1,800



여

백

## 적성면(積城面)의 내역

〈적성면 마지리 48-5〉 TEL:958-3002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적성현 동·서·남·북 현내면 5개면에 53개리로 구성되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에 연천군으로 전체 편입 연천군 남면과 적성면이 되었다.

1945년 군정 법령 제22호로 남면과 적성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으며 1946년 남면이 양주군에 편입되고 1955년 양원, 청파, 학곡, 노곡리가 다시 연천군에 이속되었으며 1963년 법률 제1178호로 늘목, 삼화리가 연천군에 편입되어 16개리로 개편되었다.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로 장파리가 파평면에 편입되었으며 경기 5악의 670고지 감악산은 삼국시대 격전지로 7개 산성이 겹겹이 둘러 싸였다하여 호칭되었다.



적성면사무소 전경

# 적성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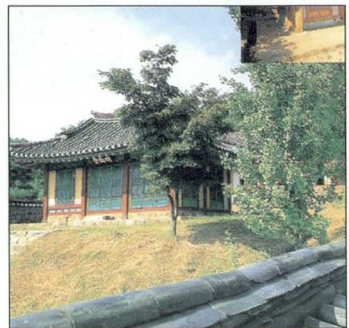
시가지 전경



감악산비



운계폭포



적성향교

# 적성면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b>馬 智 里</b> 이 지역에는 옛날 설인귀 장군이 주월리에서 이 지역을 지나 무건리에 이르러 무예를 연마 감악산을 무대로 훈련을 하였다 하여 용맹하고 뛰어난 지혜로운 용마라 하여 이름한 곳.	1	陞谷洞	퇴 골	이 마을은 뒤 감악산 서맥 망월봉하 병풍같이 둘러 싸인 높은 산 아래 있는 곳으로 유래된 지역.	60
		場內洞	장 안	이 지역은 관내 5일장 중에 하나로 1970년 샘내장이 폐장되자 이곳에 돛되기 시장이 번창되어 유래.	110
		沼溪洞	소개울	이 마을 앞 설마천이 흘러내리는 이곳에 큰 웅덩이 연못이 있어 많은 고기를 잡은 지역으로서 유래.	217
		鼎後洞	술 뒤	이 지역은 감악산 서북맥 망월봉을 지나 두지리 임진강변에 이르는 내령 이곳에 마치 술같이 생긴 산봉우리가 마을 앞에 있어 이름한 곳.	170
	2	靑鶴洞	청학골	이 지역은 망월봉 서맥 아래 허허벌판을 바라보는 이 마을 뒤 소나무와 잣나무가 무성하여 학들이 모여있는 서식처로서 이름지은 곳.	16
		馬蹄洞	말 굽 두 리	이 지역은 옛날 설인귀 장군이 주월리에서 첫새벽과 저녁으로 이곳을 말을 타고 달릴 때 말굽소리만이 요란스럽게 들렸다 하여 이름한 곳.	48
<b>食 峴 里</b> 이 지역은 답곡리를 넘나드는 국사봉하 중턱 고개 마루에서 농번기를 맞아 시원한 이곳에서 농부들이 자주 밥을 먹는 곳이라 하여 유래.	1	旅馬洞	여마니	이 지역 옛날 파발마들을 먹이고 재우던 마을로서 이름한 곳.	50
		烽火洞	봉화골	이 마을 뒤 국사봉 아래 산봉에서 봉화불로 국사를 알리는 신호대 봉화봉이 있어 유래된 곳.	101
		野村洞	뜰 말	이 지역은 근년에 허허벌판 가운데 농사를 짓기 시작해 여기저기 분포된 마을로서 이름한 곳.	2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2	三光洞	삼광말	이 지역은 미수복지역 대부분 담곡리 주민 金·郭·張氏들이 모여사는 집단부락으로서 우리 3성이 일심동체가 되어 근면하고 인심좋은 마을로 만드는데 힘쓰자는 뜻에서 유래	110
		沙田洞	모래밭	이 마을은 허허벌판 웅담리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냇물로 인하여 자갈과 모래만으로 형성된 황무지 땅 또한 홍수시 허허바다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유래된 곳.	62
<b>武 建 里</b> 이 지역 산골짜기에서 옛날 설인귀 장군이 뛰어난 무예를 익혀 무서운 장수로서 용맹을 떨치게 되었다 하여 이름한 곳.		水坊洞	빙방이	이 마을은 감악산 서맥 내령 첩첩산골 사면에 병풍같이 둘러있는 암벽으로 막은 두문동 사시사철 얼음이 녹지않는다 하여 유래된 곳.	0
		柿谷洞	감 골	이 지역에는 주민들이 감나무들을 많이 심어 가을철 장관을 이룬다 하여 유래된 마을	12
<b>雪 馬 里</b> 이 지역에는 옛날 설인귀 장군이 추운 겨울이 골짜기 눈이 쌓인 상봉을 거쳐 감악산봉을 눈위로 말을 타고 무예를 연마하였다 하여 유래.		沙 器 幕 洞	사 기 막 골	이 지역에서 옛날 주민들이 사기그릇을 만들던 막사가 있었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양주땅으로 넘나드는 험준한 기나긴 설마치 고개길 마을.	35
<b>赤 岩 里</b> 이 지역 산야에 걸쳐 붉은 바위가 분포되어 있어 유래.		三 街 里 洞	삼거리	이 지역에는 양주와 연천, 적성으로 통행하는 갈림길 이곳 세 갈래 길로 되어 있어 이름한 마을로서 독점마을로도 호칭.	11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紋岩洞	문바위	이 마을 뒤산 암벽이 각양각색으로 무늬를 띤 아름다운 바위가 분포되어 이름한 곳이며 마을 입구 양편에 문같은 大門이 있어 門岩으로도 호칭된 마을.	38
		藥 菓 岩 洞	약 과 바 위	이 마을 주위 紋岩이 분포되어 있어 약과모양에 조각들이 케케로 일어나 떨어지고 있어 이름한 마을.	50
		鼓 岩洞	북바위	이 마을 뒤산에 마치 북모양에 큰바위가 있어 이름한 지역으로 아래 삼거리 마을 또한 이바위에서 북을 빌었다 하여 福岩으로도 호칭.	44
<b>魚 遊 池 里</b> 이 지역 감악산 동맥 적암리 골짜기에서 흐르는 냇물이 이곳 마을 앞에 큰 웅덩이 연못을 이루어 수많은 고기들이 놀았다 하여 이름지어진 곳.	1	玉溪洞	옥계말	이 마을 앞으로 흐르는 냇물이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바닥에 깔린 자갈 또한 옥같이 아름다운 가지각색의 모양을 띠고 있어 이름한 곳.	25
		台日洞	태 일	이 마을 앞으로 감악산 동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홍수 때에는 이곳 주민들은 물난리를 치르게 되자 해가 나기를 크게 기원한다는 뜻에서 유래.	36
		平村洞	평촌말	이 지역은 적암리에서 내려오는 개울가에 편편한 허허벌판 자갈과 모래 바닥 위에 분포된 이곳 청렴결백한 마을로서 유래된 곳.	52
	2	魚池洞	어못내	이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어 많은 고기들이 몰려와 물이반 고기가 반이라는 호칭까지 부르게 된 맑고 깨끗한 아름다운 웅덩이라 하여 유래된 곳.	36
		鯨井洞	도래물	이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 우물은 자연적으로 암석이 둘러있는 틈바위에서 차고 감미로운 약수가 많이 나와 이름한 곳.	1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野 洞	별 말	이 지역은 허허별판 가운데 자리잡은 이곳 마을은 농경지를 쉽게 다루기 위해 주민들이 근년에 주거하게 되어 이름지은 곳.	26
		後谷洞	뒤 골	이 마을은 뒤산이 둘러싸인 깊숙한 골짜기 안말 별판 뒤에 있다 하여 유래 되었으며 이곳 뒤산봉에 옛날 칠성단이 있던 곳으로 칠성동으로 유래.	20
<b>牆 峴 里</b> 이 지역은 1914년 행정 구역 변경 당시 장평동의 「牆」字와 손현동의 「峴」字를 따서 이름한 곳.	1	松峴洞	솔고개	이 지역 장현리 장뜰에서 산덕골로 넘나드는 기나긴 고개길 좌우편 이곳에 송림이 울창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었다 하여 유래.	13
		山德洞	산덕골	이 지역 감악산 동맥 골짜기에서 많은 냇물이 내려와 홍수때 이 골짜기가 허허 바다를 이루게 되면 이마을 주민들이 뒤산에 올라 물난리를 잘 피하게 되자 이산의 언덕이라 하여 유래된 곳.	25
	2	壇坪洞	장 뜰	이 마을 주위로 둘러싸인 산맥이 마치 석담을 쌓은 모양인 편편한 별판 마을로서 이름한 곳.	36
		壇內洞	담 안	이 지역 삼면으로 둘러있는 산맥은 마치 담으로 둘러있는 안방같은 아늑하고 조용한 기분이라 하여 이름지은 곳.	35
<b>栗 浦 里</b> 이 지역은 감악산 천왕봉 북맥 내령 골짜기로 흐르는 시냇물과 장현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류, 이곳 임진강으로 흐르는 어귀포구로서 이 지역에 밤나무를 많		防溪洞	방 계	이 지역 앞 임진강변 넘어 남향에 양지 마을 개울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맥 내령이 둘러 막았다 하여 유래되었으며 강변비양에 설인귀 장군이 타던 말이 나온 용마굴이 있는 곳.	60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名	呼稱		
이 심어 유래.		東羅 筏洞	동마벌	이 지역은 임진강변 포구가 있는 동편 광활한 벌판으로 갈대와 잔디로 우거진 개포래로 이은 용마산하 기슭에 분포된 마을로서 이름한 곳.	33
<b>客 峴 里</b> 이 지역은 조선조 광해군 5년 慶有後 가감역으로 있을 당시 인목대비 폐비론이 나와 3차에 걸쳐 간신들을 죄줄 것을 상소하며 거절당하자 이곳에 낙향 99간의 기와집을 짓고 자손들에게 五倫에 힘쓰자는 뜻에서 務五齋라는 간판을 달고 학문에 전념, 여러 선비들과 금시 세유하였으나 적성현 읍에 사는 많은 선비, 손객들이 이 고개를 넘어다녔다하여 유래.	1	白雲洞	백운이	이 지역은 감악산 천황봉하 4체봉이 나란히 있는 산하마을 수시로 이곳에 흰구름이 자주 깎다 하여 이름한 곳.	35
	砂山洞	자갈괴	이 마을 뒤산에는 자갈같은 자그마한 돌로 형성되어 있어 이름지어진 곳.	20	
	龍雲洞	용운골	이 마을 뒤산 내령이 마치 용의 형체로 되어 있어 백운동에 구름을 타고 천왕봉으로 올라간다는 뜻에서 이름한 곳.	28	
	2	天王 川洞	천왕내	이 마을 앞으로 천황봉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냇물이 흘러 이름한 곳.	30
	陽地洞	양지말	이 지역은 남해에 위치한 아늑한 마을앞 웅덩이 연못이 있어 유래된 곳.	13	
	陰地洞	음지말	감악산 준령이 마을 뒤로 둘러 싸여 울창한 나무에 가리어 음지말로 호칭.	40	
<b>舊 邑 里</b> 이 지역은 옛날 적성현 읍지로서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파주군에 편입후 폐현되어 이름한 곳.	1	館洞	관골	이 지역은 옛날 적성현 읍지로서 관원들이 자고 묵었던 관사가 있었다 하여 유래된 곳.	37
		縣內洞	현안말	이 지역은 옛날 적성현 관아가 있던 안마을로서 이름한 곳.	25
	2	鶴峴洞	학고개	이 지역은 관골에서 마지로 넘나드는 언덕고개길 이곳 양편산야에 수목이 우거져 수시로 학들이 몰려와서 놀며 서식하던 아래마을로서 유래된 곳	275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匙井洞	수저울	이 마을 뒤산 기슭에 약수로 유명한 이 곳 중들이 돌아다니다 점심을 먹고 숟가 락을 씻은 우물이라 하여 유래된 곳	140
<b>佳 月 里</b> 이 지역은 감악산 북맥 내령으로 주월리를 경 계로 두지포까지 임진 강을 앞에 두고 반달모 양으로 칠중산을 둘러 싼 지맥, 옛날 3국 시 대 임진강을 사이에 두 고 밀고 당기던 격전지 이곳에 돈대가 있어 파 수보는 군졸들이 달밤 강물에 비친달이 너무 나 아름다워 이름한 곳.		城趾洞	성터말	이 지역은 감악산 북맥 끝머리에서 허허 벌판으로 이어진 임진강변 3국시대 격전 요새지로 이곳을 비롯한 6개 토성을 쌓 아놓고 墩臺위에 縣鍾臺를 설치한 지역 으로 유래	126
		六溪洞	육계말	이 지역은 감악산 북맥 임진강변으로 두 지포까지 90도 각도로 휘돌아 반달모양 으로 굽이쳐 흐르는 개울옆을 감싸고 가 월, 주월리 지역에 있는 수십만평의 황무 지 광활한 벌판 가운데로 여섯개의 돌창 개울이 형성 이곳으로 합류 검상동 범 바위를 거쳐 두 지포로 흐르고 있던 이 지역에 옛날 삼국시대 치열한 격전지로 六溪山城을 구축하여 유래된 곳이며 七 重山 북맥 끝머리 적성읍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마을 앞에 제방을 구축하였다 하여 방축동으로도 호칭	94
<b>舟 月 里</b> 옛날 이 지역은 신지강 변 마을로서 유유히 흘 러내리는 강물이 너무 나 맑고 깨끗하여 강 밑 바닥에서 노는 고기 를 또한 아름다워 고려 왕조시 우왕과 공민왕 이 자주 궁녀를 데리고 와서 달밤에 배를 타고		漢夜洞	한밤이	이 마을은 감악산 서북맥 임진강변으로 고려말 공민왕은 이곳에 障仙亭이란 정 자를 세워 궁녀들과 밤을 지새워 배노래 를 부르며 七重河에 비친 달과 은하수에 도취되었다 하여 호칭	48

里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里	行政里	洞 名	呼 稱		
늘고갯다 하여 유래된 곳.		白玉洞	맥옥뫼	이 마을 뒤산봉하 서향에 자리한 五患免跡, 五諸葛址라는 이곳에서 옛날 설인귀 장군이 탄생후 백옥같이 귀중한 인물이 나왔다 하여 백옥봉이라 명칭되어 유래된 지역. 이 지역에는 가옥을 건립하기만 하면 일년이 못가서 우환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우연히 화재를 당하게 되어 살지 못하였다 한다.	30
<b>斗 只 里</b> 이곳은 설마리 골짜기에서 마지리를 거쳐 내리는 여울이 관동서 가월리로 내려오는 냇물과 합류, 임진강으로 흐르는 어귀 두지포 이 곳(斗)자는 크게 신기로운 조화를 부린다는 뜻이 담긴 지역으로서 다만 신기스러운 곳.		斗貴洞	두귀골	이 마을 앞 임진강변 절벽 위에 신기한 바위가 있는데 이곳이 너무나 경관이 좋아 수차에 걸쳐 정자를 지었으나 얼마후 벼락을 맞고 사라졌다는 신기한 지역으로서 이름한 곳	
<b>紫 長 里</b> 이 지역 산야에 걸쳐 임진강변에 붉은 찰흙이 분포되어 있어 이름한 곳.		棗木洞	대추골	이 마을 주민들이 뒤산야에 걸쳐 많은 대추나무를 심었다 하여 유래된 곳	53
계 14	20	48			2,584
郡 內 面	2	2	2	장단군청소재지로서 이름지어진 곳	118

## 금촌읍의 내역

〈금촌읍 아동리 331-2〉

본래 교하군 아동면·현내면 지역으로 1914년 4월 1일 군면 폐합에 따라 교하군 아동면의 신금촌·야동리·아동리·금릉리와 현내면의 맥금리·검산리 지역, 지석면이 하지석리의 일부 지역, 청암면의 갈현리 일부 지역, 파주군 자곡면의 용은동 일부 지역을 병합하여 아동면이라 하였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하여 명칭 변경과 아울러 금촌읍으로 승격하였다.

경의선 철도 부설 당시 새말에는 30~40호 정도의 가구가 있었고 지금의 금촌역은 논이었다. 일본인이 역 이름을 정할 때 새말을 가리키면서 ‘무슨 마을이냐’고 묻자 한 촌로가 ‘새말’이라고 대답하였다. 일본인이 이 말을 쇠말로 잘못 들어 ‘금촌’으로 명명되었다고 한다. 「大東輿地圖」에는 金成으로 표기되어 있다.



舊 금촌읍사무소 전경

# 금촌읍



## 금촌1동(金村一洞)의 내역

〈아동동 351-5〉 TEL:943-3002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교하군 아동면으로 5개리로 구성되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교하군을 파주군에 통합 당시, 현내면 청암면 일부와 자곡면 용은동의 각 일부가 아동면에 편입 6개리(아동, 금능, 금촌, 야동, 검산, 맥금리)로 구성되었다.

이 지역은 옛날 교하현 관아가 아동리 안산말에 있어 아동면으로 호칭하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3호로 금촌읍으로 승격하였다. 금촌읍 시내 는 배혈맥으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빈배는 보물을 싣고 나가고 만선배는 풀고 나간다하여 빈손으로 들어온 사람은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버리고 간다는 10년 운터라고 전하고 있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 승격으로 인하여 아동, 야동, 검산, 맥금리와 금촌 3, 5, 7리를 포함 금촌 1동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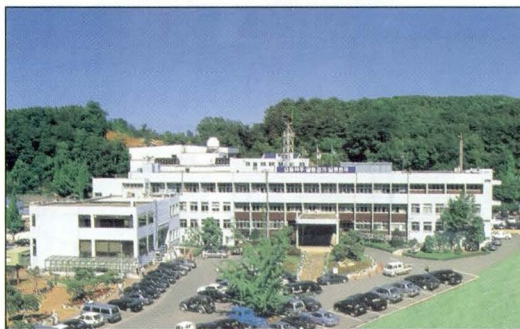


금촌 1동사무소 전경

# 금촌 1동



시가지 전경



파주시청



파주시민회관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名	呼稱		
衙 洞 洞 이 지역은 옛날 이조 연산군 10년까지 교하현 관아가 이곳 안산말에 있어 이 주위로 분포된 마을로서 이름 한 마을	1	衙谷洞	아 골	조선조 연산군 10년까지 교하현 관아가 있었던 골짜기 마을로 이름한 곳	110
		鞍山洞	안산말	이 지역은 학령산 동북맥 내령으로 말안장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이름하였으며 1504년 교하현 관아가 이곳을 유행지로 혁파됨에 따라 현 단현면 갈현리로 청사를 이전케 하였던 구읍지	73
	2	馬武洞	마무리	조선조 연산군 10년까지 교하현 관아가 안산동에 있을 당시 군마훈련 및 무예연마장으로 사용되어 이름한 곳	235
		朱紅洞	불기골	이 지역은 학령산 북맥내령 주위 3면이 울창한 높은산과 나무로 가리워 대낮에만 해를 보게 되어 진달래꽃이 만발, 붉게 물들린 마을로서 유래	135
	3	龍水洞	용수물	이 마을 뒷산 형체가 마치 용이 서리고 있는 형상으로 머리부분 쪽에 골짜기 우물이 있는데 용이 수시로 이물을 먹었다 해서 이름한 곳	372
		4	銀香洞	은행말	중종당시 음씨중시조 음학인이 공릉 참봉으로 있을 때 자리잡은 은행나무를 심어 400여년이 되는 주위마을로서 이름한 곳
	視峴洞		베 리 고 개	낙머리와 은행말로 넘나드는 이 고개정상에서 안산말에 위치한 교하현 관아가 보인다 하여 불려진 고개마을로서 유래	160
	5	屯田洞	둔밭골	이지역 후산은 용의 머리 아래마을로 공간공묘(연일정씨) 골짜기 밭을 개간 문전옥토라 하여 이름하였으며 낙원공원묘지가 설치된 곳	39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 名	呼 稱			
	3	新村洞	새마을	금천 개울이 흐르는 북쪽 용산허리 금촌 시내를 바라보는 남향에 내시가 정착한 새마을	230	
		杜谷洞	막은골	새마을을 이은 동쪽 넘어 골짜기 앞을 막아 저수하였던 마을로서 이름한 지역	306	
	5	陶店洞	독점말	고려말 용산골에 관아(천정구현)가 있을 당시 장터였으며 6.25동란후 옹기그릇을 만들었던 곳	112	
		7	寺谷洞	절 골	금용사 절이 생긴 후 불려진 골짜기 마을	105
			溪浦洞	개포말	옛날 조수물이 오락가락 하여 개포리 마을로 불리우고 있는 마을	236
		驛前洞	역전말	금촌역이 생긴 후 새로생긴 관사 및 주민마을	75	
冶 洞 洞 고려말 용산골에 천정구현 관아가 있을 당시 군기와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 큰 풀무를 설치 대규모의 대장간이 있던 곳으로 호칭	1	倉谷洞	창 골	김종완(연안김씨)부자가 여기와서 큰 창고를 건립 추수곡을 쌓아둔 골짜기 마을	95	
		院谷洞	원 골	월룡산 아래 골짜기로 고구려때 泉井口 縣읍지(현 월룡면 덕은리 용산동)이며 고려, 조선조를 거쳐 이곳에 冷井院이란 주막거리가 있어 행인들이 자고 먹고 하던 곳으로 유래된 마을	28	
		杜門洞	두문이	용산골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하여 새마을과 용산골을 건너다니기 위하여 큰 제방을 쌓아서 막아 수문을 만들어 놓은 안마을	32	
	2	冶谷洞	풀무골	고려말 용산골에 천정구현 관아가 있을 당시 이곳에서 군기와 농기구를 만든 대장간이 있던 곳	76	
		沙丘洞	모래터	영천개울에서 월룡산 남맥 최단 끝머리에 모래가 산더미 같이 내려와 쌓인 곳으로 이름한 지역	15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 名	呼 稱		
<b>儉 山 洞</b> 신장묘를 찾기 위해 월 통산 남맥 오장봉일대 산을 살살이 검색후 발 견했다하여 유래됨	1	助 音 鉢 洞	조 음 밭 이	신장묘를 찾을 당시 중 시주밥그릇(팽매기)소리의 도움을 받았다 하여 유래됨	25
		五長洞	오장봉	오장봉 주위 병풍같이 둘러싸인 깎아지른 산벽 아래 다섯째번 끝골짜기가 있는 마을	18
	2	新倉洞	새창골	개성부자 공선문이가 큰 창고를 설치 추수곡을 쌓은 곳	136
		舟東洞	배무기	금성천과 금천개울이 합류 영천강이 되어 모래턱을 지나 흘러내려 상선배가 오르내리다가 이 마을에서 풍랑시 배를 묶어 두었다는 곳	15
	3	冷井洞	찬우물	월통산하에 있는 우물로 여름에는 이가 시릴정도로 차고 겨울은 온수가 되어 가물에도 줄지않는 물이 흘러내려 옛날 군마와 파발마가 있던 역원(冷井院)이 있어 유래.	53
	<b>陌 今 洞</b> 이 지역 일대가 보리밭 이 많아 보리고개시 황 금물결이 치는 현상으 로 맥금(麥金)이라 호 칭후 행정구역 변경당 시 큰다리부터 바구니 고개를 올라가는 긴 언 덕이라 하여 陌今으로 변경	1	大橋洞	큰다리	월통산 남쪽 골짜기로 흐르는 개울하단 장터고개에서 갈현리로 가는 중간지점에 놓은 다리 양쪽마을
場趾洞			장 터 고 개	연산군시 교하현 관아가 갈현리로 이전 시장이 생긴 후 이곳에도 자그마한 중간 시장이 있었다는 곳	15
錦橋洞			금 물 다 리	통나무를 엮갈려 그물을 놓아 網橋이나 달밤에 비친 물위의 다리가 마치 비단같이 아름다운 찬란한 광경이어서 錦水橋(금물다리)로 호칭	31
2		上谷洞	상 골	월통산 서맥 탄현면 범흥리와 경계한 윗골짜기 마을	43
3	中 洞	중간골	맥금 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가운데 마을(갈현리와 상곡동으로 가는 삼거리 안말)로서 이름한곳	33	

여

백

## 금촌2동(金村二洞)의 내역

〈금촌동 75-11〉 TEL:943-2201

조선조 광무3년(1899) 행정구역 개편 당시 교하군 아동면으로 5개리로 구성되었으나 1914년 일제강점기 교하군을 파주군에 통합 당시 현내면 청암면 일부와 자곡면 용은동의 각 일부가 아동면에 편입 6개리(아동, 금능, 금촌, 야동, 검산, 맥금리)로 구성되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6543호로 금촌읍으로 승격하였으며 1996년 3월 1일 파주시 승격과 함께 6개리중 금능리와 금촌 1, 2, 4, 6, 8리를 합쳐 금촌 2동으로 편제하였다.



금촌2동 사무소 전경

# 금촌 2동



시가지 전경



교하향교



금촌의료원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名	呼稱		
<b>金 陵 洞</b> 옛날 이 지역 금성천에 상선이 오르내리던 전성기는 금화로 둘러 싸였다 하여 금성리로 호칭하다 숙종 대왕시 현능굴(금계포란형)에 능자리를 잡은후 금능리라 불리우게 되었다하는 설과 1731년 영조 7년 장릉(인조대왕릉)을 갈현리로 천묘 교하군 관아가 이곳에 이전후 당초 금자와 능자를 따서 금능리로 개칭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음.	1	鄉校洞	향교말	교하현 관아 소재지로 향교가 있는 마을로서 이름한 곳	18
		書院洞	서원말	인조때 쇠재능선 끝머리 산정에 미촌(윤선거)선생이 세운 신곡서원이 있었던 마을로서 이름한 곳	66
		竹 洞	대 굴	이 마을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인 남향 골짜기로서 옛날 대나무를 밭에 심었었다 하여 유래된 곳	24
	2	大倉洞	대창이	공릉천이 이마을 앞으로 지나 금성천으로 흘러 큰상선이 드나든 지역으로 곡식 및 상품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던 마을로서 유래	31
		獨岩洞	독암골	학령산 서맥준령이 내려와 별판 가운데 돌암석이 우뚝 서있어 불려진 마을로서 유래된 곳	65
		蛇谷洞	뱀사골	학령산 서맥골짜기 아래에 뱀이 많이 나와 이름한 곳이며 아파트단지가 있는곳	210
<b>金 村 洞</b> 이 지역은 당초 신화리로 되었으나 경의선을 신설 역명을 지을 당시 일본인이 주민에게 이 동리 이름을 물으니 새 마을이라 대답하자 쇠마을(金村)로 알고 금촌리로 명칭하였다 하며 일설에는 아골과 영태리에서 흘러내리는 금천(金川)넷물인 금자와 마을촌자를 따서 금촌리로 명칭하였다 한다.	1	柯木洞	가 나무 골	주위에 둘러싸인 산의 형체가 제비가 나는듯 하며 도끼자루 나무가 무성하던 삼태기 같은 금성 철교안 마을	23
		後谷洞	뒤 골	들판뒤 학령산 서편 능선골짜기가 길게 형성된 마을	25
		荒谷洞	황 골	생수가 없는 황무지 능선을 둘러싼 골짜기에 있는 마을	57
		水輸洞	무너미	쇠재 개울이 홍수로 범람할 때 독암동에서 금촌시내로 물이 넘어왔다 하여 불려진 마을	245
		遊趾洞	놀 이터 말	옛날부터 해마다 이 지역에서 봄철 10일간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며 단합을 결속하는 민속놀이를 하던 마을	280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 名	呼 稱		
金 村 洞		瓦谷洞	기와골	이 골짜기에서 기와를 만들던 곳으로 이름난 지역	25
		鶴翎洞	학령말	학의 날개 모양인 학령산 서맥준령은 전망이 화려한 공동묘지터로서 시가개혁으로 천묘와 아울러 새로된 마을	18
	2	栗木洞	밤 나무 골	밤나무가 무성하여 가을이면 밤아람을 이웃끼리 나누어 먹은 마을	136
		中央洞	중앙말	6.25동란후 황폐한 이 지역은 군청소재지가 된 후 새로 생긴 금촌시내 중앙마을	285
		市場洞	시장말	각 기관 사회단체가 집중 주민들이 몰려들어 시장의 번영을 이룬 마을	340
		連池洞	연지말	유참봉(유화상)댁 정원앞에 연못을 크게 파놓고 고기를 길렀던 마을	204
	4	新花洞	셋 골	당초 쇠곳(金串)은 금성리(金城里) 쇠재 개울까지 상선(商船)이 오르내려 번창하였고, 돈이 득실거리던 중(금으로 둘러싸인 부락) 차츰 개울이 매몰되자 이곳 쇠곳에 상선이 정착됨으로 돈이 이곳(蛇頭) 산뿌리에 모였다 하여 쇠곳(金串)으로 불렸으나 뱀혈이 동서로 길게 형성된 마을로서 동쪽 사미(蛇尾)끝 산중턱에 신화 민발형의 산소자리가 발견된후 신화리(新花里)라 이름하였다 한다.	52
		侍墳洞	시분골	조선조 성종대왕 당시 쇠곳에 정착한 정효상(鄭孝常) 계림군(경주인)의 딸을 왕후로 책봉 궁궐로 들어가던 중로에서 사망하자 쇠곳마을 앞산에 안장되었으나 자손들이 산지까지 매각 수호를 못하여 잡초가 우거진 분묘만 아직까지 남아있어 시분골이라 불리우고 있는 마을	21

洞 名		自然部落名		自然部落名稱由來(10戶以上)	家口數
法定洞	行政洞	洞名	呼稱		
		陰陽洞	음양말	음지쪽에 있는 음달이였으나 양지쪽에도 분포되어 음양말로 불리어진 곳	210
		開化洞	개화말	금촌초등학교 앞에 분포된 마을로 산 아래 활짝 핀 꽃(개화골)이라 하여 불려진 마을	34
		連塘洞	연당말	당초 한학자 박희명 선생이 정착후 앞논 500여평에 연당을 심어 물고기를 기르고 즐기며 시연을 베푼곳	
	6	金川洞	쇠내울	관아가 있던 아골과 선우물에서 내려오는 개울로서 금화에 전성기를 만든 시내 개울이었던 곳	185
		月迎洞	달 맞이 말	매년 정월보름날 시내 사람들이 모여 이 능선에서 달맞이한 지역	230
		船倉洞	배창골	옛날 부두로서 선적 또는 하역하기 위해 보관창고가 있던 곳	210
	8	松林洞	송림말	빹빹한 푸른 소나무가 장관을 이룬 곳	159
합계	6	23	55		6,332
총계	(124) 103	258	671	※ 미수복지(적성2, 장단6, 진동5, 진서3, 군내면5개리) 21개리는 제외됨.	37,351